

W

GOOD
COMMUNIC
POLYGLOT
PAPER

e'r

4カ国語LIVE情報 創刊準備号

CONTENTS

DISCOVERY

We're誕生

LIVE IN

出会いは縁なり

AMUSEMENT

映画～客途秋恨～

CULTURE SHOCK

混浴銭湯?

TOPICS

シリーズ入管法

WANTED

外国人雇用パターン

VOICE

環境問題激論!

●表紙の顔

大畑理恵(おおはたりえ)
1977年9月7日台湾、台北市生まれ。
新宿区立大久保中学校2年生
剣道部、日頃、台湾の流行歌を聞いて中国語
を耳で覚えている。
今、憧れは、モデルになること。

●封面人像

大畑理恵(Ohata Rie)
1977年9月7日生于臺灣臺北市。大久保中學
校二年級學生，劍道部。平時經常聽臺灣的
流行歌曲，通過耳朵學會了中國話。
現在向往的目標是成爲一個模特兒。

●Cover Girl

Rie Ohata - Born 7 September 1977 in Taipei,
Taiwan. 2nd grade student at Okubo Junior
High School. Member of Kendo (Fencing) Club.
Presently learning Chinese by ear by
listening to popular songs from Taiwan.
Wants to be a model.

●표지의 얼굴

大畑理恵(오오하타 리에) 1977년9월7일臺灣, 臺北市 出生.
大久保중학교2년생. 검도부, 평소에 대만의 유행가를 듣고
중국어를 귀로 들어 익혔음.
장래의 꿈은 모델이 되는 것.

WATASHITACHI
わたしたち

WO MEN
我們

ATION

e

WE

URI
우리

D I S C

4カ国語情報We're誕生

新宿、大久保通りは、相変わらずの人ごみ。すれちがうのにも、体をよじらなくてはならないほどだ。昔からの店が軒をつらね、ひと山いくらと書かれたくだものがピカピカ光っている。商店街のスピーカーに、ふと気がつく。日本語のほかに耳慣れないサウンドが続く。最後の「謝謝（シェーシェー）」「カムサハムニダ」「サンキュー」を聞き取って、ゆっくり見まわすと、本当だ、顔を見ただけではわからなかったけれど、行きかう人の声も異国の言葉だ。学生らしい幼さの残る男の子たち。寝起きらしい青白い顔のお姉さん。教会帰りの太ったおばさん。語学学校の教師

四國語言的情報

We're 誕生了

新宿の大久保街還是依舊不變的熙熙攘攘，甚至面對面走過時，也不得不扭曲身體互相讓路。從前就一直開着的店鋪鱗次櫛比，一堆堆標着多少錢的水果閃閃地在發光。從商店街的揚聲器中，忽地注意到除了日語之外，還接連地傳出了自己的耳朵不習慣的聲音。能够聽懂的只有最後的“謝謝”、“卡姆沙哈姆尼達（韓國語、謝謝）”以及“Thank you”。緩慢地放眼四看，果然，只看面孔不知道，來來往往的行人，他們的聲音亦是異國的語言。像學生似的，臉上還有稚氣的男孩子。睡眠惺鬆的臉色略帶青白的小大姐們。從教會剛回來的胖大嬸、大娘們。像語言學校的教師似

We're 編集スタッフ
We're 的編輯人員
We're Editorial Staff
We're 편집스태프



風的金髮で背の高いお兄さん。NTT新宿前の電話ボックスは、深夜割引の時間となるとこみあってくる。「空室ありますか？」アパート探しにあちこち歩き、口コミで見つける住居や仕事。在住の長い人は、日本語も流暢で通訳兼情報伝達人となる。

一方「知らない間にこの辺はかわったねえ」と眉をひそめる近所のおばさん。「技術を覚えてみたら？」とタイ人男性と話しているクリーニング屋の主人。外国人と共生し始めた大久保の表情はさまざまだ。

国際化の時代の幕開けと、マスコミで毎日とりあげられている。実際に新宿区の外国人登録者数を見ると、アジアの国の人々が圧倒的だ。「韓国または朝鮮-7,661人」「中国、

の満頭金髪、身材高大的哥兒們。

在NTT（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新宿支店の門前，一到深夜減價的時間，電話亭就不知怎麼的，開始擁擠起來了。

“有没有空房間？”爲了尋找住居而四處奔波，通過口傳新聞的渠道物色住居和工作。住得較長的人，日語也流暢了，所以兼作口譯和情報傳遞人。

另一方面，住在鄰近的大嬸們却皺起了眉頭，“不知不覺地這一帶全變了呢。”。“要想學點技術嗎？”洗染店的老板正和一位來自泰國的男性搭上了話頭。開始和外國人共同生活的大久保，其表情亦各式各樣。

電視、廣播、報章、雜誌，每天都在宣傳國際化時代的揭幕。看一下在新宿區登記的

OVERY

INTRODUCING We're THE
NEWSPAPER THAT BRINGS YOU
INFORMATION IN 4 LANGUAGES

Whenever you walk along Okubo-dori in Shinjuku you have to thread your way through the throngs of people. The shops lining the street have been there from long ago. The fruit in piles, each with its own price tag, shines as though it has been polished. You suddenly realize that the sounds issuing from the speakers along the street are not Japanese but belong to a language unfamiliar to your ears. You catch the final 'Tze Tze', 'Kamsahamnida' or 'Thank you', and slowly looking back, though you wouldn't have realized it just by looking at their faces, the people going to and fro are speaking in foreign languages. Young boys with their big schools bags or their books. Pale-faced girls. Plump women returning from church. Tall young men with blond hair who teach in the nearby language school. Queues form outside the telephone boxes in front of the Shinjuku NTT building when the late-night discount rates start. 'Have you a room to let?' Information about apartments and jobs is passed on by word of mouth. Foreigners who have lived here a long time are fluent in Japanese and they act both as interpreters and as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neighbourhood women who frown and say, 'It's amazing how much this area has changed in such a short time.' 'What about learning a skill?' says the owner of the dry cleaners to the young man from Thailand. Foreigners and Japanese live side by side in Okubo.

Every day the mass media takes up the topic of internationalization. Asians are by far the predominant number of foreigners registered in Shinjuku Ward. '7,661 North or South Koreans', '6,214 Chinese and Taiwanese', '691 Filipinos', '626 Americans' ...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registered in September 1991 was 17,936, but as this figure did not include those on tourist visas or those whose visas had expired, the actual number was doubtless much larger. The total population of Shinjuku Ward in October this year was 282,336 (7,411 down on the previous year). Japan has never before in its history had such a large influx of foreigners. But sometimes the slightest misunderstanding can lead to mistakenly judging a country's national character and even to active dislike. People have a variety of reasons for living in the megalopolis that is Tokyo, but it is no longer enough, either for the Japanese or for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o simply communicate with people of the same nationality or to communicate information by word of

4개국어정보 We're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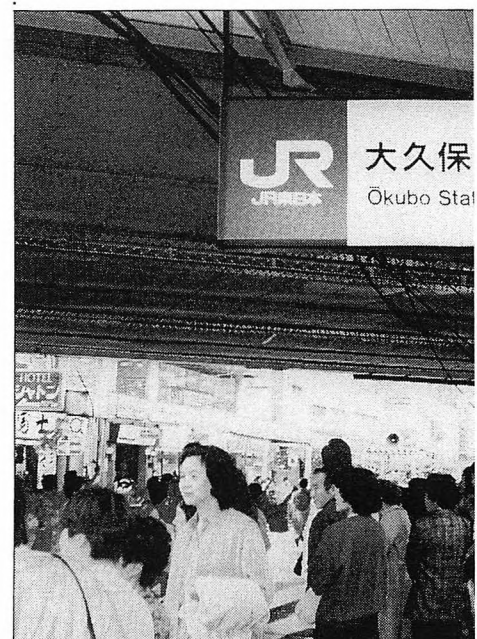
신주쿠(新宿), 오오쿠보도오리(大久保通り)는 변함없이 붐비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 가려면 몸을 비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옛부터 점포가 즐비하고, 한 점시에 얼마라고 쓰여진 과일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다. 상가의 스피커로 갑자기 깨달았지만 일어 외에 귀에 익지 않은 소리들이 계속된다. 마지막 말에 "謝謝(씨에씨에)" "감사합니다" "상큐(댕큐)"를 듣고서야, 천천히 주위를 보면 "그렇구나" 일굴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의 소리를 들어본 즉 이국의 말들이다. 학생티가 나는 조금 어린 감이 남은 듯한 남자아이들. 방금 일어난 듯한 험쭉한 아가씨들. 교회갔다 오는 뚱뚱한 아주머니. 어학학교의 교사인 듯한 금발에 큰 키의 청년. 신주쿠NTT앞의 전화박스에는, 심야할인시간이 되면 웬지 모르지만 붐비고 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을 찾기 위해 여가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말의 정보교환으로 겨우 찾는 방과 일(아르바이트). 오래 체재한 사람은 일어도 유창하고 통역 겸 정보전달인이 된다. 한편, "모르는 사이에 주위가 변해 버렸네"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근처 아줌마. "기술을 배우지 그래?"하고 태국인 남자와 얘기하는 세탁소 주인. 외국인과 공생을 시작한 오오쿠보(大久保)의 표정은 다양하다. 국제화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매스컴은 연일 떠들썩하다. 신주쿠구(新宿區)의 외국인등록자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각국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및 조선계가 7,661명" "중국, 대만이 6,214" "필리핀691명" "미국:626명" 등1991년9월현재17,93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 통계에는 관광비자인 사람, 비자기한 초과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수는 수배가 되리라. 신주쿠구(新宿區) 전체인구는 올해 10월현재 282,336명. (전년도에 비교해서 7,411명 감소)

일본이란 나라는 이만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적이 과거에 없었다. 그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은 오해로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해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일이 상호간에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 동경에 사는 목적은 갖가지 다양하리라만, 지금까지의 입에서 입으로 내지는 같은 민족간의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었던 일본사람으로서도, 타국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불편하기

発見

J R 大久保駅
J R (日本鐵道) 大久保車站
JR Okubo Station
JR 大久保駅



台湾—6,214 人」「フィリピン—691 人」「米国—626 人」・・・1991年9月現在17,936人の外国人が登録している。この数字には、観光ビザの人、ビザぎれの人は含まれていないから、その数は何倍かになるだろう。新宿区全体の人口は、本年10月現在 282,336人。

（前年度比較で7,411 人減少）日本という国が、これだけの外国人を受け入れたことは、過去になかった。そのためか、ちょっとした誤解で、それぞれの国柄を判断したり、憎んだりすることが互いの間で発生している。大都市東京に住む目的はさまざまだが、これまでの口コミや、同民族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手段だけでは、もうとてもやっていけないのはだれが見ても明らか。目と目で通じあうテレパシーはもっているけれど、人間は言葉をか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は「身近な国際交流をもって世界を肌で感じるチャンスを作ろう」とWe'reを発行するのはこびとなった。こうして4カ国語を並べてみると、漢字ばかりの中国語も、文法は同じけどまるで幾何学模様のようなハングル文字も、義務教育から習っている英語も、単な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ひとつなのにさまざまな歴史や背景をもっていることに気がつく。まずは自由発言からスタートし、異文化を理解し、お互いを見つめ合える場所として、この新聞が役立ってくれることをめざす。そのステップは小さくて、迷いは多いかもしれないが、We're（わたしたち）と声かけあって、一緒に考えたり、生活していきたい。人間が生きて何より重要で、かつ必要な資産は友人を作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日本語からの翻訳ばかりでなく、ほかの言語からも翻訳していけるように皆さんの参加を大いに歓迎したい。

外国人の数字、就會知道亞洲人是絕大多數。
“韓國或者朝鮮——7,661人”，“中國、臺灣——6,214人”，“菲律賓——691人”，“美國——628人”。截至1991年9月，共有17,936個外國人登記。這個數字不包括觀光簽證，以及簽證到期的人在內，所以實際人數會是這個數字的好幾倍。新宿區全部的人口截至今年10月份為282,336人。（比較前年度減少7,411人。）在日本這個國家內接收這麼多的外國人，是前所未有的。因此，由於些須的誤解，就會以此來對那個國家全體進行判斷，甚至發生互相憎惡的感情。居住在大都市東京的人，其目的是各式各樣的。到目前為止的口傳新聞渠道，只為同一民族的人們之間的交流所用，無論對日本人來說，還是對其他國家的人來說，都是不妥當的。儘管我們具有用眼目傳神的心靈感應的法術，但是，人類是非通過語言交流不可的。“讓我們通過就在身邊的國際交流來創造和世界直接接觸的機會吧！”這樣，我們終於開始發行 We're 了。現在，把這麼四種語言並排放在一起，無論是全部都是漢字的中國語；還是語法和日語相同，但形狀像幾何學一樣的韓國文字；還是我們從義務教育開始就在學習的英語；雖說都單是一種交流的手段，我們發現其中自有各種各樣的歷史和背景。我們先從自由發言開始，來理解各不相同的文化。讓這份報紙作為大家取得相互理解的場所，來起到它的作用吧。儘管這一步是很小的，也可能會充滿迷惘的。可是，讓我們齊聲高喊 We're（我們大家），相互勉勵，一起進行思考、生活，並邁步向前。人類要生活下去，比任何都重要而且必要的資產，大概莫過於交結朋友了吧。

我們希望不單要有從日語翻譯的文章，而且還要有從其他語言翻譯的文章。我們熱忱地歡迎各位踴躍參加。



古式ゆかしい 鉄砲組百人隊
令人留戀的古式江戸幕府時代的步槍百人隊。
Ancient 100-Member Gun Company
옛모습 그리운 鐵砲組百人隊

EMS 國際ビジネス郵便

世界の主要都市（71カ国）へ翌日、翌々日配達。300gから20kgまでの書類、荷物を航空輸送。迅速、金額有利な人気サービス。事故防止のための追跡システムで配達確認できる。

EMS EXPRESS MAIL SERVICE

Delivery in one or two days to major cities throughout the world (in 71 countries). Documents and goods from 300 g to 20kg transported by air. A popular service that is fast and economical. Delivery can be confirmed by the follow-up system to avoid loss or misplacement.

EMS 國際商業郵件

隔天或隔兩天就可以遞送到世界71個國家的主要都市。用航空運送從300克到20公斤為止的商業文件和物品。是迅速、價格有利的深受歡迎的服務項目。具備防止事故發生的追蹤系統，以確認遞送情況。

EMS 국제비즈니스우편

세계의 주요도시(71개국)에 익일(다음날), 익익일(다음다음날) 배달. 300그램부터 20킬로그램까지의 서류, 하물을 항공수송. 신속하면서 금액면에서 유리하여 경제적이므로 인기있는 서비스임. 사고방지를 위한 추적서비스로 배달확인이 가능함.

POST

国際ビジネス郵便

カレバビジネスメール

素格のビジネス! 速い荷が、安い。簡便。これが大メリットです。

EMS 国際ビジネス郵便



mouth. We can communicate with our eyes by telepathy, but man must also be able to exchange words. Our decision to publish We're arises from the desire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close contact with the world through personal international interchange'. By arranging the 4 languages in this way - Chinese composed entirely of characters, Hangul with its identical grammar but looking like some geometrical pattern, and English that brings back memories of compulsory education - we can see that although languages are simply a means of communication, each has its own history and background. We hope that this newspaper will provide a place for free expression and help to bring about an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This is only a small step and it may be fraught with difficulty, but we want to encourage peoples to talk together, think together and live together. As long as we live, our most important, most vital asset is our friends. We would welcome your participation in We're not only in translating from Japanese, but from other languages too. Also, any suggestions or ideas are always welcome!

짜이 없는 일이다. 눈과 눈으로 서로 통하는 텔레파시를 갖고 있으면서,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말로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은 "우리 주변의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를 피부로 느끼는 찬스를 만들자"라고 하여 We're가 발행된 연유가 되었다. 이와같이 4개국어를 비교해 보면, 순 한자뿐인 중국어도, 문법은 같지만 마치 기하학처럼 보이는 한글문자도, 의무교육에서 배우긴 배워 온 영어도, 단순한 의사소통의 하나이면서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선은 자유발언에서 시작해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로서 본 신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 첫발은 작고, 좌표를 헤맵이 있을 지라도 We're(우리들)라고 서로 말을 건네주고, 함께 생각하고 생활해 가고자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 필요한 재산은 베퉴 만드는 능력이 아닐까. 일어로부터 번역해가는 일방통행이 아닌, 다른 언어로부터도 번역하면서 지면이 메워지도록 여러분의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자 한다.

編集室屋上から望む、大久保風景
從編輯室的屋頂眺望大久保の景色
View of Okubo from the roof of the editorial office.
편집실옥상에서 조망하는 大久保풍경.

●EMS（国際ビジネス郵便）の料金（円）

あ て 先		重 量				
		300g まで	300g ～ 500g	500g～3 kg まで 100g ごとに加算	3 kg～10kg まで 500 g ごとに加算	10kg 以上 500gごと に加算
ア ジ ア	インド、韓国、中国ほか	800	1,000	180	600	450
オ セ ア ニ ア	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ほか	1,200	1,800	220	900	600
北・中央71リカ	米国、カナダ、パナマ					
中 近 東	イスラエル、イラク、 サウジアラビアほか	1,400	2,000	220	900	700
ヨ ー ロ ッ パ	イタリア、英国、ドイツ、 フランス、スイスほか					
南 ア メ リ カ	アルゼンチン、ブラジルほか	1,600	2,200	400	1,300	1,000
ア フ リ カ	エジプト、コートジボワール、 南アフリカ共和国ほか					

IN

in

生活人

出会いは縁なり

「成田空港に到着した、あの8年前の夜に食べた牛丼のことは一生忘れない」と大きく見開いた目を少しうるませて彼はいった。台湾で観光ホテルの仕事に従事し、コンピュータの勉強と、将来経営者になる夢を抱いて来日した彼が、頼る人もなく、空港で知り合った同国の男性と東京に着いて初めて食べたのは、味のついた極薄の牛肉がごはんの上にのったものだった。台湾では少なくとも3~4品のおかずがつくのがあたりまえ——食文化の違いとはいえ、カウンターに背を丸めて器をついている日本人の姿は、裕福な日本のイメージとはうらはらだった。もちろん、お金を十分出せば、立派なフルコースも食べられる。しかし、8年たった現在でも、日常の食生活の違いと、愛情の表現の違いにまごつく。

最初に社長（荏原重機株式会社）とは、コンピュータの学校に通うかたわらアルバイト先の店で出会い、しだいに意気投合し、付き合いが始まった。そうして、勉学に励んでいるうちに、学生ビザが2年の期限をむかえ、再度延長の申請をしたところ、入国管理局ではねられてしまった。台湾に帰るか、日本にそのまま残るか、あるいは米国に渡ろうか…思案に暮れていたところ、社長がコンピュー

萍水相逢在緣分

“到達成田機場的那個8年前的夜晚吃的牛肉蓋澆飯，我是終生難忘的。”他一邊說着，一邊睜大了眼睛，眼眶里閃爍着淚花。原本，他是在臺灣的一家觀光飯店供職的。抱着學習電腦專業和將來能够獨立經營的理想，他孑然一身來到了舉目無親的東京，在機場裏和偶然認識的也是來自臺灣的男性同胞一起吃的第一頓飯就是這個調好味道的極薄的牛肉蓋澆飯。在臺灣的話，至少也總得有三、四個菜吧——雖然說是飲食文化的差異，看到面對櫃檯蜷縮着身子，手拿飯碗筷子啄食的日本人的背影，這和富裕的日本人的形象真是有天壤之別呀！當然，如果肯出大錢的話，亦可以吃上整套的大菜的。但是8年過去了，一直到今天，他還是對日常飲食生活上的差異，以及愛情表達上的差異感到迷惑和不可理解。

和社長（荏原重機株式會社）的初次見面是他在電腦學校讀書時勤工儉學的店裏。逐漸地互相意氣相投，就開始交往了。就這樣，在他奮力就讀時，不知不覺地兩年的學生簽證到期了。到入國管理局再次申請延期，想不到給打了回票。是回到臺灣去呢，還是繼續留在日本，要麼就到美國去……他左思右想，不知所措。就是在這個時候，社長給他介紹了好幾家電腦公司。可是，因為招工聘用的時期已經過了，結果只好是再等一年。“到我們公司做做看，



百人町、自宅での陳さん
在百人町自己住居的小陳

百人町, 자택에서의 陳씨

Chin at his home in Hyakunin-cho.

CHANCE ENCOUNTER?

'I will never forget that bowl of beef and rice that I had the night I arrived at Narita Airport 8 years ago', he recalled, his eyes becoming moist. Employed in a tourist hotel in Taiwan, he had come to Japan with the dream of studying computers and in future running his own company. Without a single friend to whom to turn, he had arrived in Tokyo with another Taiwanese whom he had met at the airport and his first meal had been thinly sliced pieces of flavored beef on top of rice. In Taiwan it was usual for a meal to consist of at least 3 or 4 dishes - but even allowing for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the sight of the Japanese bent over the counter wolfing down their food was contrary to the image he had of Japan as an affluent country. Naturally, if you have the money, you can eat a full-course meal in style. But even now after 8 years, he still has difficulty reconciling differences in daily eating habits



and in ways of expressing love.

He first met the company president of Ebara Heavy Machinery Co., Ltd. at the shop where he worked part-time while attending the computer school. They got on well together and often came to be found in each other's company. Meanwhile, he devoted himself to his studies until his 2-year student visa expired. When he w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his visa, his application was turned down. Should he return to Taiwan, or stay in Japan, or perhaps go to America...? Undecided, the company president introduced him to a number of computer companies. However, because he had missed the normal enlistment period, wherever he went, he was told he would have to wait a year. When the company president offered him a job in his company, his hesitation was all the greater because his dream was to work in computers. But he was touched by the kindness of the company president who,

만남이 인연인 즉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8년전 밤에 먹은 규우동(소고기덮밥)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하고 크게 열린 눈을 좀 글썽이며 그는 말했다. 대만에서 관광호텔업무에 종사하고, 컴퓨터를 공부하여 장래에 경영자가 될 꿈을 안고 일본에 건너 온 그가, 연고도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된 같은 대만사람과 동경에 도착해서 처음 먹은 것이 조리한 극히 얇은 소고기가 밥 위에 얹혀진 것이었다. 대만에서는 적어도 3~4개 정도의 반찬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일로—아무리 음식문화가 다르다 해도 카운터에서 등을 구부리고 앉아 밥공기를 들고 입속에 갖다 집어넣는 일본인의 모습이란, 부자나라 일본의 이미지와는 생판 다를름을 느꼈다. 물론, 돈만 있다면 멋진 풀코스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 식생활의 차이와 애정표현의 차이에는 당황할 때가 있다.

처음, 사장님(荏原重機주식회사)과는 컴퓨터회사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점포에서 만나, 점차 뜻이 서로 맞아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학업에 열중하던 중에 학생비자가 2년의 기한을 맞아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입국관리국(入館)에서 거부되었다. 대만에 귀국할 건가, 일본에 그대로 체류할 건가, 아니면 도미(渡米) 할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장님이 컴퓨터회사를 몇 군데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응모시기를 놓쳐, 또 일년을 그냥 보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 회사에 안 오겠나?"라고 건네는 사장님의 권고에 컴퓨터업계를 꿈으로 한 이상 망설임은 있었지만, 비자를 얻기 위한 방대한 양의 입관에 제출할 서류를 불평없이 갖춰준 사장님의 호의에 감동해 입사키로 했다.

"인연이란 말이 크게 와 닿습니다. 지금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저를 공부시켜주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 좋은 안(案)만 있으면 평등하게 수렴해 주는 우리 회사는 최고입니다." 입사초기 때에는 전화를 받으면 "일본사람파워"라는 말을 듣곤 했다. "외국인이라 해서 처음부터 말을 못 알아들으려니 하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 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진(陳)씨의 이름이나 목소리도 금방

● PROFILE

Chin Chim: Born 1959 in Taipei, Taiwan. Age 32. Lost his mother when he was small and was raised by his father and grandmother. Only child. After graduating from Reimei College, he worked in a hotel in Taipei for 5 years. Came to Japan in 1983. Studied for 1 year at Japanese Language School in Nakano Ward, then pursued computer studies at Japan Electronics College for 2 years. Presently employed at Ebara Heavy Machinery Co., Ltd. in Shinagawa ward, a company leasing crane trucks, etc. In charge of truck allocation and accounting business. 40 employees in company. Chin is the only foreigner. Lives in Hyakunin-cho in Shinjuku Ward.

職場での仕事風景

在車間工作的場面

직장에서의 업무모습

At work

● 약력

陳吉壽: 1959년출생. 臺灣, 臺北市출신. 32세. 유년시절에 모친을여의고, 조모와 부친에게 양육되었다. 외아들. 黎明전문학교졸업후, 臺北市호텔에 5년간 근무. 1983년 도일. 나카노구(中野區)에 있는 일본어학교에 1년간, 일본전자전문학교에서 2년간 컴퓨터를 공부함. 현재근무중의 荏原重機주식회사(品川區)는 트럭크레인 등의 리스회사. 배차오퍼레이터와 경리업무를 담당. 사원수 40명. 그중 외국인인 陳씨1명. 新宿區百人町거주.

●プロフィール

陳吉幕 (ㄉㄣˊ ㄇㄩˋ) : 1959年生まれ。

台湾、台北市出身、32歳。幼少の頃、母を亡くし、祖母と父に育てられる。一人っ子。黎明専門学校卒業のち、台北市のホテルに5年間勤務。1983年来日。中野区の日本語学校に1年間学び、日本電子専門学校で2年間コンピュータを学ぶ。現在勤務の荏原重機株式会社(品川区)はトラッククレーンなどのリース会社。配車オペレートと経理業務を担当。社員数40名。うち外国人は陳氏一人。新宿区百人町在住。

●人物簡介

陳吉幕：1959年生。原籍臺灣省臺北市，32歲。幼年時喪母，由祖母和父親撫育長大。獨子。從黎明專門學校畢業後，在臺北市的一家大飯店供職5年。1983年來日。在中野區的日本語學校學了一年，進日本電子專門學校學了兩年電腦專業。現在供職的荏原重機株式會社（地址：品川區）是一家汽車起重機等租賃公司。擔任調配車輛以及財會業務。該公司職工共40名，其中外國人僅陳氏一名。現住新宿區百人町。



台湾にて、家族と友人と食卓を囲む

在臺灣和家屬和朋友們共圍餐桌而坐。

Enjoying a meal with family and friends in Taiwan.

대만에서, 가족·친구와 함께 식탁에서

タ会社を何件か紹介してくれた。しかし、応募の時期をはずしたため、また、一年見送りという結果となった。「うちの会社でやってみないか？」の社長の言葉に、コンピュータ業界を夢んでいた以上、ためらいはあったが、ビザ獲得のための、膨大な量の入管局提出の書類を文句ひとついわずに揃えてくれた社長の好意に胸をうたれ、入社を決意した。

「縁という言葉を強く感じます。今は給料をもらいながら、勉強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仕事に対していい案をもっていたら、だれでも平等に採用してくれる今の会社は最高です」

入社当時は、電話にでると「日本人にかわれ」といわれたりもした。「外国人だということで、最初から話がわからないときめつけられたことが、くやしくて、一生懸命、努力しました」。今では陳さんの名前も声もすぐわかってきて、ジョークをとばしあったりするようにもなった。「僕の頃より今はもっと日本で働こうと思っている人が増えているけれど、ビザ獲得も一段と厳しくなっている。くじけず、まじめな姿勢でがんばってほしい。日本で生き残るには、まじめに何でも率先してやること」。と同胞たちに伝えたいという。

日本人に対しては「最近、外国人を見る目が、不法就労、売春婦など悪いイメージばかりむけられている気がする。何にでも原因と結果があるでしょう。一方的な立場でばかり見ず差別心を捨てて、壁をとり除いてほしい。先にすすめませんよ、隔たりがあっては」

大久保のアパートを借りるまでも、さまざまな差別にあった体験を語りながら、彼は将来の夢を最後に語った。「小さくてもいいから、自分で会社を経営したい。弁当屋からスタートしようかな?」。かわいなお嫁さん募集中。これもまた縁かな、としめくくった。

怎麼樣?”懷抱着電腦行業的理想的他，對於社長的話確實是感到猶豫不決的。但是看到社長毫無怨言地為他準備取得簽證時向入國管理局提出的數量龐大的證明文件，他終於給社長的好意打動了，毅然決定了進公司工作。

“我深深體會到了緣分這個詞兒。我現在還在這裏一面領薪水，一面讓我學習。只要是對工作有利的，誰的建議都平等相待地採用。現在的公司真是再好亦沒有了。”剛進公司的時候，接電話時，有時亦會給對方講：“找個日本人來說話吧。”“因為自己是外國人，所以還沒開始就劈頭被說成不懂話。這一肚子的窩囊氣，逼得我不管一切努力工作。”到了今天，無論是小陳的名字或聲音都馬上能為對方識別，插科打諢，互相有說有笑了。“和我剛開始時相比，現在想在日本工作的人更多了。但是，要得到簽證亦更難了。要緊的是不要氣餒，要用認真的態度努力堅持。想要在日本生存下去，就得要認真和事事領先做。”這是他希望轉告他的同胞們的話語。對於日本人，他說：“最近在看待外國人時，我似乎感到目光都集中在非法就業以及賣春婦等等不好的形像上。我想什麼事情都是有因有果的。不要總是站在單方面的立場上看，要拋棄歧視心理。我希望要能夠把牆壁去掉，不拆除隔牆的話，是無法前進的。”他還講到了自己在租到大久保的房間之前，所親身體驗到的種種歧視。同時，在最後談到了他的理想。“再小也沒有關係，我想要經營自己的公司。從賣便當開始怎麼樣?”現在正在募集一個溫柔可愛的新娘子。這大概亦是緣分吧。他最後這樣說道。

SIGHT SEEING



旅・紅葉・日光

without a word of complaint, set about drawing up the mountain of documents he had to pres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to get his visa. He made up his mind to accept the offer.

'I feel very strongly about fate. Now I can study and earn a salary at the same time. What I like about this company is that if someone presents a good proposal with regard to work, it is adopted regardless of who presented it.'

When he first started working there, whenever he answered the phone, the person on the other end would say, 'Put a Japanese on the line.' 'It annoyed me that the person on the phone would think I wouldn't understand because I wasn't Japanese and it made me try even harder.' Now people immediately recognize Chin's voice, they know his name and they often share jokes with him.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come and work in Japan is even greater now than when I first came, but it has become harder to get a visa. You must not be discouraged by all the red tape though. To survive in Japan, you have to make your own way.' That is his advice to his fellow countrymen.

Of the Japanese he says, 'Recently I get the feeling that they see all foreigners in a bad light, as illegal workers or prostitutes or whatever. Everything has a cause and effect. It isn't good to take a one-sided view of things. Discrimination is no good. The walls need to be broken down, otherwise things won't get better. There should be no walls.' He spoke of the discrimination he came up against when he was looking for an apartment. He eventually found a place in Okubo. And finally he spoke of his dream for the future. 'I would like to run my own company, no matter how small. Maybe I should start by selling packed lunches! Who knows, I may even be able to attract a prospective cute bride?' That too may come from a chance encounter...



小滝橋通りを歩く、陳さん
小陳、在小滝橋街歩行。

Chin taking a stroll along
Otakibashi-dori.

小滝橋通 를 걷는 陳씨

알아서, 농담도 할수 있게끔 되었다." 저희때보다도 지금은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지만, 비자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길 바란다. 일본에서 살아 남으려면, 진지하게 뭘든지 술선택해서 행동할 것." 하고 동포들에게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최근 외국인을 보는 눈이, 불법취로, 매춘부 등 나쁜 이미지만 드러나도록 하는 감을 느낀다. 뭘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일방적인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차별심을 버리며, 벽을 헐어 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선 진전이 없을 것이다. 거리를 두어서야." 오오쿠보(大久保)의 방을 빌리기까지는 갖가지 차별을 받았다하며 체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는 장래의 꿈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 "작아도 좋으니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데. 도시락가게라도 시작해 볼까?" 귀여운 새색시를 모집중이란단다. 이것도 인연일까, 하고 매듭짓는 진씨였다.

秋は、紅葉の季節です。

今回は日光(栃木県)を紹介します。

秋天是紅葉的季節。這次，我們介紹日光(栃木縣)。

Autumn is the season when the leaves change color. In this issue we look at Nikko in Tochigi Prefecture.

가을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금회에는 닛코오(日光, Tochigiken)를 소개합니다.

交通機関 <電車>

ASAKUSA ————— TÔBUDÔBUTSUKÔEN ————— TÔBUNIKKÔ
浅草 東武動物公園 東武日光
TÔBUISEZAKISEN TÔBUNIKKÔSEN
東武伊勢崎線 東武日光線

快速~全自由席・約2時間5分 (1, 140円)

特急~全指定席・約1時間40分 (1, 140+特急料金1, 140円)

<自動車>

TÔHOKUJIDÔSHADÔ ————— NIKKÔTUNOMIYADÔRO・NIKKÔ I・C
東北自動車道 日光宇都宮道路・日光I・C

<定期観光バス>

東武バスの日光名所めぐり7コースがある

A

M U

S



客途秋恨
客途秋恨
KYAKUTOSHUKON
客途秋恨

第4回東京国際映画祭が、渋谷を中心に開催され、世界各国の映画人が東京に集まり、盛況だった。アジア秀作映画週間（9月28日～10月4日）も設けられ、アジア各国を代表する10本の映画も上映された。今年はなぜか映画の祭りが多い秋。そこで、創刊準備号のこの頁は、映画特集である。

客途秋恨 (きゃくとしゅうこん)

10月下旬より・シネマスクエアとうきゅう

★ 90年アジア太平洋映画グランプリを始め数々の賞に輝くこの作品で香港ニューウェーブ派の旗手として絶賛をほしいままにしてきた女流監督アン・ホイ（許鞍華）の作品。中国人の祖父母に溺愛されて育ち、英国留学を経て香港に帰ってきた娘ヒューエン（曉恩）と日本人である母（葵子）との相克と和解のドラマである。舞台も曇天のロンドン、逆光のマカオ、雨の香港、秋風の九州湯布院とバラエティに富んでいる。異なった歴史、異なった環境に生きてきた母と娘が、お互いの心を理解していく過程が静かに描かれ、感動を呼ぶに違いない。

＜キャスト＞ ヒューエン：張曼玉／マギー・チャン

葵子：陸小／ルー・シャオフェン

K2 ハロルドとティラー K2:HAROLD & TAYLOR

10月上旬より・新宿東急、渋谷東急ほか

☆ ヒマラヤ山頂の北端にそびえ立つ世界中のクライマーたちの憧れの山＜K2＞を舞台に、命がけで頂上をめざす男たちの野望と友情をドラマチックに描いた作品。

＜ディレクター＞ フランク・ロッドム

＜キャスト＞ マイケル・ビーン（ティラー）

マット・クレイブン（ハロルド）

テルマ & ルイズ THELMA & LOUISE

10月中旬より・新宿ピカデリー1

渋谷東急2ほか

■ 平凡な専業主婦のテルマと、コーヒーショップのウェイトレス、ルイズ。旅の途中での偶発的事件をきっかけに、鮮やかに自己を開放していく過程を描いた「女だけのロードムービー」。

第四回東京国際映画祭、以澀谷地区を中心開幕了。世界各国の電影工作者都聚集到東京來，濟濟一堂，真是盛況空前。還於9月28日至10月4日設置了亞洲優秀電影週，上映了亞洲各國有代表性的10部片子。亦不知道什麼道理，今年的多事之秋，電影節特多。在本創刊預告號的這一頁上，我們安排了電影特集。

《客途秋恨》

從10月下旬開始，在シネマスクエアとうきゅう電影院上映

★本片是曾得到1990年亞洲太平洋地區電影節大獎，以及其他為數眾多的絢爛奪目的電影獎的作品。其女導演許鞍華，作為香港新浪潮派的旗手，博得了高度的贊美。這是一部從小就受到中國人的祖父、母的溺愛，留學英國後回歸香港的女兒曉恩，和她的日本人的母親葵子之間互相對立，而最終言歸和好的戲劇。其舞臺背景有陰雲的倫敦、逆光的澳門、雨中的香港，以及秋風蕭瑟的九州湯布院，可謂富有變化。它以寧靜的手法描述了出身於不同的歷史和環境的母女倆相互從心底裏得到瞭解的過程，感人至深。

＜主演＞ 曉恩：張曼玉

葵子：陸小芬

《K2 哈羅德和泰勒》

K2:HAROLD & TAYLOR

從10月上旬開始，在新宿東急、渋谷東急等電影院上映

☆以矗立在喜馬拉雅山頂北端的，全世界登山運動員夢寐以求的“K2”為舞臺，描繪了把生命置之度外，以山頂為目標全力攀登的人們，他們的雄心和友情的故事。

＜導演＞ 藍科・羅丹姆

＜主演＞ 邁克爾・比恩（泰勒）

馬特・克萊本（哈羅德）

《西爾馬和路易絲》

THELMA & LOUISE

從10月上旬開始，在新宿ピカデリー1、渋谷東急2等電影院上映

■平凡的家庭婦女西爾馬和咖啡廳的女侍者路易絲。描寫的是主人公們在旅途中，由於一件偶然發生的事件，色彩鮮艷的自我開放的過程。這是一部只有女性的路途電影。

EVENT

The 4th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entered in the Shibuya area, was a great success and attracted a host of movi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10 films from the various countries of Asia were shown during Asian Film Week (28 September ~ 4 October). This autumn has seen a proliferation of film festivals, so we would like to include a special film feature page in the debut issue.

KYAKUTO SHUKON

Showing from late October at Cinema Square Tokyo

★ This film has won many awards, including the 1990 Asia Pacific Film Grand Prix. Directed by Anne Hui, the highly acclaimed standard-bearer of Hong Kong New Wave. It portrays the strife and reconciliation of a young girl (Hye Yen) raised by doting Chinese grandparents who returns to Hong Kong after studying in England, and her Japanese mother (Aiko). The film is set against the cloudy skies of London and the dazzling glare of Macao, Hong Kong in the rain and Yufuin in Kyushu in the autumn. A moving portrayal of how a mother and daughter with different pasts and living in different environments come to reach an understanding of each other.

<CAST> Hye Yen: Maggie Cheung
Aiko: LU Hsiao-Fen

K2: HAROLD & TAYLOR

Showing from early October at Shinjuku Tokyo, Shibuya Tokyo and other cinemas.

☆ Set on <K2>, the towering mountain on the northern tip of the Himalayas and the dream of climbers the world over, the film is a dramatic portrayal of the aspirations and friendship between the men who risk their lives to reach the summit.

<DIRECTOR> Franc Roddam
<CAST> Michael Biehn (Taylor)
Matt Craven (Harold)

THELMA & LOUISE



Showing from mid-October at Shinjuku Piccadilly 1, Shibuya Tokyo 2 and other cinemas.

제4회동경국제영화제가 시부야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세계각국의 영화인이 동경에 한데 모여 성황을 이뤘다. 아시아우수작품영화주간(9월28일~10월4일)도 설정되어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10편의 영화도 상영되었다. 금년에는 무슨 연유인가 영화페스티벌이 많은 가을.거기에 맞추어 창간준비호의 본 페이지는 영화특집으로 꾸었다.

客途秋恨(객도추한)

10월하순부터 · 시네마스퀘어 도쿄
(CinemaSquareTokyu)

★ 90년아시아태평양영화그랑프리를 비롯해 갖가지의 상(賞)에 빛나는 본 작품으로 홍콩뉴웨이브파의 기수로서 절찬을 한없이 받아 온 여류감독 안·호이(許鞍華)의 작품. 중국인의 조부모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영국유학을 거쳐 홍콩에 돌아온 딸 휴옌(曉恩)과 일본사람인 모친(葵子)과의 대립과 화해의 드라마. 무대도 흐린 하늘의 런던, 역광의 마카오, 빗속의 홍콩, 가을바람속의 九州湯布院 등 변화무쌍함을 보인다.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모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조용하게 묘사되어 감동을 부른다.

<출연> 휴옌: 張曼玉 / 마기 · 찬
葵子: 陸小 / 루 · 샤오첸

K2 해럴드와 테일러

K2: HAROLD & TAYLOR

10월중순부터 ·
신주쿠 도쿄(Shibuya Tokyo),
시부야 도쿄(Shibuya Tokyo) 외

☆ 히말라야산정의 북단에 우뚝 솟은 전세계의 등산가들이 동경하는 산 <K2>를 무대로, 생명을 걸고 정상을 향하는 사나이들의 야망과 우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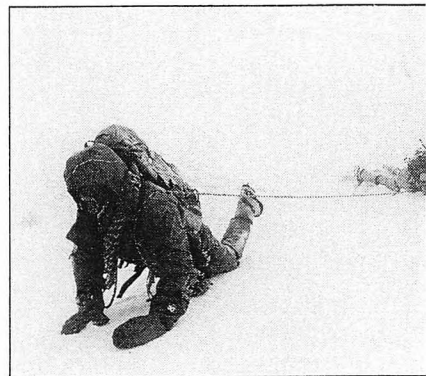
<감독> 프랑크 · 로담
<출연> 마이클 · 비인(테일러)
마트 · 클레이븐(해럴드)

텔마 & 루이즈

THELMA & LOUISE

10월중순부터 · 신주쿠 피카디리1
시부야 도쿄2 외

■ 평범한 주부인 텔마, 다방의 웨이트레스인 루이즈. 여행 도중의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생생하게 자신을 개방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여성만의



K 2

テルマ&ルイーズ
西爾馬和路易絲
Thelma and Louise
텔마 & 루이즈

<ディレクター> リドリー・スコット
<キャスト> スーザン・サランドン (ルイーズ)
ジーナ・デビス (テルマ)

ハートブルー

POINT BREAK

10月上旬より・新宿アカデミー、新宿文化
シネマ2、渋谷シネタワー1ほか

● 西海岸のサーファーたちのメッカ、カリ
フォルニア、ベニスビーチ地区での銀行強
盗事件に立ち向かう25歳のエリートFBI
捜査官ジョニー・ユタとベテランのパパ
スガ、LAのビーチを駆け抜ける。

<ディレクター> キャスリン・ビグロー
<キャスト> キアヌ・リーブス (ユタ)
パトリック・スウェイジ (ボディ)

ハートブルー
破点
Point Break
허트블루



ダリ天才日記

DALI

10月下旬より公開・新宿ビレッジ2

◇ スキャンダラスな奇行でバリの画壇を騒
がせていたシュールレアリスムの天才画家、
サルバドール・ダリ。アメリカでは、まだ
無名だった彼にタイム紙の取材が申し込ま
れ、半生が彼自身の言葉で語られる。

<ディレクター> アントニー・リバス
<キャスト> ロレンツォ・クイン (ダリ)
サラ・ダグラス (ガラ)

10月10日(木・祝)新宿三越南館
オープン。8階にはデパートでは都内
随一の規模をもつ三越美術館も同時オ
ープンしダリ展が開催されている。
11月17日(日)まで。

<導演> 黎特利・斯科特
<主演> 蘇珊・薩維多(路易絲)
齊娜・戴維斯(西爾馬)

<破点> POINT BREAK

從10月上旬開始，在新宿アカデミー、新宿文
化シネマ2、渋谷シネタワー等電影院上映

● 美國西海岸冲浪板愛好者的聖地——加利福
尼亞威尼斯地區。25歲的聯邦調查局的精英搜
查官約翰尼・尤泰和經驗豐富的巴巴絲，挺身
而出，為偵破搶劫銀行案件，疾走於洛杉磯的
海濱。

<導演> 凱瑟林・比格羅
<主演> 奇阿奴・里勃斯(尤泰)
帕特里克・斯溫齊(包笛)

<達里> DALI

從10月下旬開始在新宿ビレッジ電影院放映

◇ 用其惡名昭著的奇特行為，騷動了巴黎畫壇
的天才的超現實主義畫家，塞爾瓦多・達里。
在美國還是默默無聞的他，有一天，突然《時
代週刊》要來採訪了。用達里自己的語言描述
的他的半生。

<導演> 安東尼・里巴士
<主演> 勞倫滋・奎因 (達里)
薩拉・道格拉斯(加拉)

10月10日(星期四、國定假日)新宿三越南
館開館。在8樓的三越美術館，(是全東京都
內百貨公司所屬美術館中最大的，)亦同時開
放。正在舉辦達里作品的展覽會。

M O V I E

新宿武蔵野館 03(3354)5670 11/2(土)より
<上映> 連日/10:25 2:00 5:45



七人の侍

時は中世日本の戦国時代。血と汗の結晶で
ある一年の収穫を、毎年のように野武士たち
に奪われて絶望の淵にあった貧しい百姓たち
は村を守るため、浪人の侍を雇うことを思い
つく。封建的で絶対的な身分の違いから、始
めは互いに不信感を抱いていた両者だったが、
戦闘の訓練や共同の生活を通して、百姓たち
は戦うことの大切さを学んでいき、侍たちは
百姓たちの悲惨さを理解し、いつしか互いを
人間的に認め合い、心を通わせるようになる。
が、そんなとき、野武士が村を襲撃してきた。
彼らはいかにして戦うか。そして勝者は果
たしてだれか。2時間半を越える大作だが大
迫力の戦闘シーン、プラス恋あり涙あり笑い
ありのヒューマンイズムあふれる見事な演出で、
必ずや画面に釘づけになる傑作。

<監督> 黒沢明
<出演> 志村喬、三船敏郎、津島恵子ほか

■ Thelma is an ordinary housewife and Louise a waitress in a coffee shop. This film vividly portrays the process of their liberation as a result of an unforeseen incident while travelling. The film features only women.

<DIRECTOR> Ridley Scott
<CAST> Susan Sarandon (Louise)
Geena Davis (Thelma)

POINT BREAK

Showing from early October at Shinjuku Academy, Shinjuku Bunka Cinema 2, Shibuya Tokyu Cinema Tower 1 and other cinemas.

● Following a bank robbery in the Venice Beach area of California, the West Coast surfing mecca, 25 year-old elite FBI criminal investigator, Johnnie Utah, and veteran Papas give chase along LA beaches.

<DIRECTOR> Kathryn Bigelow
<CAST> Keanu Reeves (Utah)
Patrick Swayze (Body)

DALI

For release in late October at Shinjuku Village 2

△ Salvador Dali, the genius of surrealism who scandalised Parisian art circles with his eccentric conduct. Still unknown in America, he is asked to give an interview to Time magazine and he recalls half his life in his own words.

<DIRECTOR> Antoni Ribas
<CAST> Lorenzo Quinn (Dali)
Sarah Douglas (Gara)

Shinjuku Mitsukoshi South Building opening Thursday October 10th (National Holiday). Also opening at the same time on the 8th floor is the Mitsukoshi Art Gallery, the largest department store gallery in Tokyo. The Dali exhibition will be held here until Sunday 17th November.

로드무비.

<감독> 리드리 · 스콧
<출연> 수잔 · 사라돈(루이즈)
지나 · 데이비스(텔마)

허트블루

POINT BREAK
10월상순부터 · 신주쿠 아카데미, 신주쿠 분카(文化)시네마2, 시부東시네타와1 외

● 서해안의 서퍼(SURFER)들의 메카, 캘리포니아, 베니스비치지구에서의 은행강도사건에 맞서는 25세의 엘리트FBI수사관 조니 · 유타와 베테랑의 파파스가 LA의 해안을 종횡무진으로 활약.

<감독> 캐서린 · 비그로
<출연> 키아누 · 리브스(유타)
패트릭 · 스웨이치(보디)

달리天才日記

DALI
10월하순부터 공개 · 신주쿠 비릿지(ビレッジ)2

△ 스캔들적인 기행(奇行)으로 파리의 화단(畵壇)을 떠돌적하게 했던 슈리얼리즘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 무명이었던 그에게 타임지의 취재가 신청되어 반생이 그 자신의 생생한 말로 엮는다.

<감독> 안토니 · 리바스
<출연> 로렌초 · 퀴(달리)
사라 · 더글러스(가라)

10월10일(목·휴일)신주쿠 미즈코시 미나미칸(新宿三越南館)오픈. 8층에는 백화점으로서의 동경도내에서 첫째가는 규모를 갖는 미즈코시(三越)미술관도 동시개장하여 달리전(展)이 개최되고 있다.
11월17일(일)까지



ダリ天才日記

達里

Dali - Diary of a Genius
Japan Herald

달리 천재일기 일본헤럴드

七武士

時值中世日本の戦国時代。貧苦の農民們血汗結晶の一年的收穫、幾乎毎年都被山賊們掠奪一空、站在絶望の深渊。爲了捍衛自己的村落、他們打出了雇傭流浪武士的主意。由于封建制度、武士和農民的身份是截然不同的。一開始、他們之間互不信頼。但是、通過戰鬥的訓練和共同的生活、農民們逐漸學得了關爭的重要性、而武士們則了解了農民的悲惨生活、不知不覺的互相開始以人相待、心心相印。就在這個時候、山賊們突然向村落襲來了。他們之間是怎樣打仗的、結果又是誰打勝的。兩個半小時以上的長篇鉅作中、有動人心魄的戰鬥場面、加上愛情和有淚有笑的洋溢著人道主義的精彩表演。這是一部會叫你目不轉睛地盯住銀幕的傑作。

<導演> 黑澤明

<主演> 志村喬、三船敏郎、津島恵子等

SEVEN SAMURAI

This film is set in mediaeval Japan during the age of civil strife. Every year the annual harvest, fruit of the blood and sweat of the impoverished peasants, is plundered by wandering samurai. Thrown into the depths of despair, the peasants decide to employ a number of masterless samurai to protect their village. At first both sides are full of mistrust for each other due to the absolute nature of their different feudalistic status, but through living together and training for the coming battle, the peasants come to learn the importance of fighting while the samurai come to appreciate the wretchedness of the peasants' lives, until finally they begin to recognize each other as human beings and to understand each other. But then the wandering samurai attack the village.

How should they fight? And who will be the victor?... The film is a two and a half hour-long epic filled with powerful battle scenes plus a humanism that has love, tears and laughter. It is a masterpiece that will not fail to keep your eyes riveted on the screen.

<Director> Akira Kurosawa

<Cast> Takashi Shimura,

Toshiro Mifune, Keiko Tsushima

7인의 사무라이(侍)

때는 중세 일본의 전국시대. 피망홀려 이문결정(結晶)인 일년의 수확을, 매년 악한 무사들에게 탈취되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가난한 백성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떠돌이무사(사무라이)를 고용하도록 한다. 봉건적이면서 절대적인 신분의 차이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불신감을 갖으나, 백성과 무사는 전투의 시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백성들은 싸우는 일의 귀중함을 배워 가고, 무사들은 백성들의 비참함을 이해하여, 어느덧 서로를 인간적으로 인정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때 악한 무사들이 마을을 습격해 온다. 그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 2시간반을 넘는 대작이면서, 대박력의 전투장면, 그에 더해 사랑, 눈물, 웃음있는 휴머니즘 넘치는 멋진 연출로, 당신은 반드시 화면을 떠날 줄 모르게 매료되는 흥미진진한 걸작이다.

<감독> 黑澤明

<원출> 志村喬, 三船敏郎, 津島恵子 외

CULT SHOCK

疑問ばかりの世の中。ましてや異国の土地にとびこんで生活するの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何事も経験——という昔の人の言葉は本当だ。来日してからのさまざまな体験談を聞いてみた。

♠にぎやかなお通夜

日本に来て面白い本を見つけた。葬式の時に着る服装の本である。半年たったころ、下宿の大家さんが亡くなり、通夜の日、ぴかぴ

本來，在這個世界上疑問亦是够多的了。再要闖入異國他鄉去生活，真是太不容易了。凡事靠經驗——這句老古話是太有道理了。以下我們採訪了幾位來到日本後的經驗之談。

◆熱鬧非凡的守靈儀式

來到日本以後，我發現了一本有趣的書，是有關參加葬禮時所穿的服裝的。剛過了半



かに正装した紳士、薄化粧した淑女がいっぱい集まってきた。何かパーティでも催されているかのようなだった。親族の人たちはもてなしに気を配り、隣室では紳士淑女がお酒を飲んだり、ごちそうを食べたりにぎやかだった。私は開いた口がふさがらなかった。中国では葬式のための服装を案じたり、通夜の席でお酒を飲んだりすることなんて、まるきり前代未聞の事だ。ましてや、休日にピクニック気分で霊園を訪れたり、アベックが腕を組んで散歩しているのを、うちのおばあちゃんが見たら、おそらく杖でも落としてしまうだろう。

〈中国人女性 28歳〉

♣混浴銭湯?

下宿の近くの銭湯に入りに行った。韓国では女の「さんすけ」さんが、体を洗ったりマッサージをしてくれる。日本にそれがあるとは聞いてなかったけれど、何と、男の人が裏の戸口から表れた。隣の女性を見まわすと平気な顔をして体を洗っている。おじいさんともいえる年齢ではないし、オケを片付けたり

年の時候，我寄宿的住居的房東去世了。守靈儀式的當夜，穿着筆挺的禮服的紳士們、薄薄地化了妝的淑女們，車馬盈門，就像在開晚會一樣。親屬們忙於招待客人，在我隔壁房間里，紳士淑女們喝酒吃菜，真是熱鬧非凡。我當時真是吃驚得目瞪口呆了。在中國，要考慮葬禮用的服飾、守靈的夜晚要喝酒等等，簡直就是沒聽說過的。還有，在休假日掃墓去時，就像去野餐似的；在路上男男女女挽着胳膊在散步等等。諸如此類的事情，叫我奶奶看見了，一定會連老拐杖都掉在地上了。

〈中國女性 28歲〉

◆男女混浴の澡堂?

有一次，我到宿舍附近的澡堂去洗澡。在韓國時有女的“助浴員”給你洗身子或敲敲背的。在日本，從來沒有聽說過有這麼回事的，想不到看到一個男人從後門口出現了。我看了一眼鄰近的女性，但她們都毫不在乎地衝洗着自己的身體。還不能算是到老頭子的

TURE OCK

The world is full of questions. So how much more difficult it must be to go and live in a foreign land. Seeing is believing - the truth of this saying from long ago cannot be denied. We asked a number of people to relate their experiences on coming to Japan.

♣ A MERRY OLD WAKE

Soon after I arrived in Japan, I came across an interesting book. It was about what to wear to a funeral. About 6 months later, the landlord of the lodging house where I was living died and on the night of the wake the house was full of men all dressed up in formal suits and ladies wearing light makeup. It looked as though they were having a party. The relatives were welcoming the guests, and the ladies and gentlemen were eating, drinking and making merry in the next room. My mouth just fell open. In China it is absolutely unheard-of to be concerned about what you wear for a funeral or to drink alcohol at a wake. And if my grandmother could see the way people visit cemeteries as if it were a holiday and they were going on a picnic, or the way couples walk arm in arm, she would drop her walking stick in surprise.

<28 year - old Chinese woman>

♣ MIXED BATHING?

I decided to go to the public baths near my lodgings. In Korea there would be a lady attendant there who would wash you and give you a massage. I hadn't heard of there being such a person in Japan, but all of a sudden a man appeared in the doorway near the rear of the bath. I looked around but nobody else was taking any notice. The other women just went on washing themselves. He wasn't very old. He started tidying up the washing bowls and stools. One woman in the



많은 의문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더군다나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생활을 하기란 쉬운일은 아니다. 어떻게 경험해 볼 일이다—라는 선조들의 말씀은 과연 일리있다 하겠다. 여기에 일본에 건너 와서 겪었다는 갖가지 체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 떠들썩한お通夜(추도 밤샘)

일본에 와서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다. 장례식때 입는 복장에 관한 책이었다. 반년정도 지난 후, 하숙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상가(喪家)에서 밤샘을 하는 날, 번쩍번쩍하게 정장을 한 신사들, 옅은 화장을 한 숙녀들이 다수가 모이기 시작했다. 뭔가 파티라도 벌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친족되는 사람들은 접대에 신경을 쓰고, 옆방에서는 신사숙녀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들거나 하면서 떠들썩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진 채 다물 줄을 몰랐다. 중국에서는 장례식을 위한 복장을 염려하거나, 상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일이란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전대미문이다. 그 위에 휴일에 피크닉기분으로 성묘를 가거나, 남녀가 쌍쌍이 팔을 끼고 산보를 하는 광경을 우리 할머니가 본다면, 아마도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중국인 여성28세>

♣ 혼욕공중욕탕?

하숙집가까이에 있는 공중목욕탕(銭湯)에 목욕을 갔다. 한국같으면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이 때를 밀어주거나 맛사지를 해 준다. 일본에 그런 것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지만, 아이고 답소사!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몸을 씻는 여자분들을 봐도 태연한 얼굴로 그대로 계속 씻고 있다. 할아버지뻘 되는 나이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세면대야를 정리하는 것 뿐이었다. 욕탕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할머니는 벌떡 일어서서 그 사람과 세상얘기 등의 잡담을 시작했다. 모르는 외간남자에게 자기 알몸을 보이는 광경이야 말로! 조심성있고 예의바른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지금도 얼굴이 달아온다.

<한국인 여성25세>

● 혼네와 다테마에

타이완(臺灣)에서 일본인을 나타내는 말로 "日本人有禮無體(일인은 예의는



何かしているだけだ。湯ぶねにつかっていたおばさんは、立ち上がってその人と世間話を始めた。知らない男の人に自分をさらけだすなんて。つつしみ深い民族だと思っていたのだけれど…恥ずかしさと怒りで、今も顔がほてってくる。 <韓国女性 25歳>

●ほんね と たてまえ

台湾で日本人を表わす言葉に「日本人有礼無体」(にっぷんらんうれーぼーてい)というのがある。台湾でホテルのボーイをしていたある日、日本のお坊さんの団体を迎え尊敬と緊張で接待した。しかし深夜になってご帰還なされたお坊さまたちの腕には、若い女性の腕がからまり、ひとりずつ部屋に消えていった。日本に来てから初めて見た光景にショックをうけた。「立ちション」というのか、人通りのある道でも、平気で用を足している。礼儀正しい言葉はたくさんあるけれど、行動は全く違うという意味なのである。

<台湾人男性 31歳>

♥忍耐は美德

ビジネスの相手先から接待をうけた。銀座の高級フランス料理店だった。僕がフランス人で、日本に来てからフランス料理を食べてないと聞いてのお誘いだった。新入荷のボジョレーワインが目玉がとびだすほどの値段でメニューにのっていたが、相手は誇らしげにオーダーし、注がれたグラスの香りを嗅いだ。僕の地方では、ボジョレーのそれはテーブルワインで気軽に飲むものだ。続いてディナー。彼の頼んだ物とは違うものが運ばれてきたが「いいよ、いいよ」とおおようにそれを食べた。仕事では絶対ゆずらない人も、こういう時はゆずるんだなあ。 <仏人男性 25歳>

年齢了、他做的不過是收拾一下木桶以及其他瑣事。正泡在浴池里的一個大婦兒，站了起來，和這個人開始聊天了。在自己素不相識的男人面前赤身裸體！我原先以為（日本人）是個極其謙虛恭慎的民族。……當時感到的羞恥和惱怒，現在想起來臉還會紅。

<韓國女性 25歳>

●眞話と原則

在臺灣，有句表達日本人的話，叫做“日本人有禮無體。”我當時還在臺灣的一家大飯店裏做侍者。那一天，我抱著緊張而又尊敬的心情伺候着來自日本的和尚團體。但是，到了深夜，回到飯店裏來的和尚的胳膊裏都挽着個年輕女人，一個個地消失在自己的房間裏了。到了日本來，我又為初次見到的光景大吃一驚。

該是叫“隨地小便”吧，即使在有人來往的路邊亦會大大方方的輕鬆一下的。雖說是比比皆是的話話彬彬有禮，一到行動，就截然不同——就是這句話的意思。

<臺灣男性 31歳>

♥忍耐は美德

一次，有一家生意上往來的公司請我吃飯。是在銀座的高級法國菜館。那是因為聽說我是法國人，到了日本還沒有吃過法國菜，所以請我的。新進貨的博若萊葡萄酒，也在菜單上，看了一下價錢，我差點兒眼珠子也掉出來了。

我的東道主滿懷自豪地點了一瓶，嗅着傾注在杯子裏的酒的香味。在我的故鄉，博若萊葡萄酒只不過是日常食桌上隨便喝的酒。接下來就是正餐。但搬來的菜是和他叫的不一樣的。“沒關係，沒關係”，他落落大方地就吃下肚裏了。平常做事情是寸步不讓的，沒想到在這種時候却會讓步呀。

<法國男性 25歳>

	●舌が回る (shita ga mawaru)	●舌を出す (shita wa)
意味	大変よくまたは、早くしゃべる様子	1. かげで相手をばかにする様子
意思	說話流利，口若懸河	1. 背後嗤笑 (某人)
Meaning	Be very talkative or talk very quickly	1. Laugh at someone behind
의미	대단히 잘 또는 빨리 말하는 모습막힘없이 지절이는 모습	1. 몰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모습
例	彼女はよく舌が回るので、議論しても、かなわないや。 "Kanojo wa yoku shita ga mawaru no de, giron shite mo, kanawanai ya."	1. 上司の前ではいい顔していい 2. 友人だと思って声をかけた 1. "Joshi no mae de wa ii kao iru yo na hito da." 2. "Yujin da to omotte koe wo Ayamarinagara perotto"
	那個女人，口若懸河；和她辯論也敵不過。 "She's such a good talker, you don't stand a chance of winning an argument with her." 그녀는 말을 잘하므로 (능변이므로), 의론해봤자 못 당한다.	1. 是個在上司面前滿臉堆笑， 2. 以為是自己的朋友招呼了上司 1. "He's the kind of person who the boss but makes fun of" 2. "I thought it was my friend. I apologized and felt very" 1. 똘사람 앞에서는 좋은 얼굴하고 있 2. 친구라고 생각하고 말을 건넸

bath stood up and started chatting to him. Exposing herself to a man she didn't know! And I had thought the Japanese were such a modest race ... Even now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e blush with shame and anger.

<25 year - old Korean woman>

● REAL INTENTIONS AND OUTWARD APPEARANCES

In Taiwan there is a saying about the Japanese that for all their polite words, their actual behaviour is quite different. One day when I was working as a bellboy in a hotel in Taiwan, a group of Japanese Buddhist priests came to stay. We treated them with the greatest respect. However, when the priests returned to the hotel late that night, they each had their arm round a young girl as they disappeared into their respective rooms. And when I arrived in Japan, the first sight that met my eyes gave me a shock. A man was urinating in public, totally unconcerned about passers - by. For all their polite words, the actual behaviour of the Japanese is quite a different matter.

<31 year - old Taiwanese man>

♥ PATIENCE IS A VIRTUE

I was once entertained by a business contact. He took me to a first-class French restaurant on the Ginza. He knew I was French and he took me there because he had heard that I hadn't had any French food since coming to Japan. My eyes nearly fell out of their sockets when I saw the price of the newly - arrived Beaujolais wine on the menu, but my companion proudly ordered a bottle. The waiter poured the wine and my companion raised his glass to savour the aroma. Where I come from, Beaujolais is simply a table wine that is drunk without pretension. Then came dinner. He was served a different dish to the one he had ordered, but he quite happily ate it saying it didn't matter. There are times, I thought, when even people who won't give an inch at work will make concessions in other ways.

<25 year - old Frenc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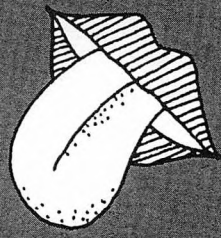
있는 듯 하면서 실체는 다른 모순된 인간들)"라는 말이 있다. 타이완에서 호텔 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일본의 스님들 단체를 맞이하여 존경과 긴장감으로 접대를 했다. 그런데 심야가 되어 호텔로 돌아온 스님들의 팔에는 젊은 여자들의 팔들이 엉겨 걸려 쌍쌍이 방들로 헤어져 가는 것이었다. 또, 일본에 와서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치송(서서적, 서서 길거리에서 소변보는 일)"이라 할까, 사람이 다니는 행거리에서도 천연스럽게 용변을 보는 것이다. 예의바른 말들은 많이 있으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인 것이다. <타이완 남성31세>

♥ 인내는 미덕

비즈니스 상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긴자(銀座)의 고급불란서요리점이었다. 내가 불란서 사람이면서 일본에 와서 불란서요리를 아직 안 먹어 봤다고 하여 권해 받은 것이다. 새로 입하된 "보조레와인"은 눈이 뒤집어질 정도의 가격으로 메뉴에 실려 있었지만, 상대는 자랑스런 듯이 주문해서 글라스에 담긴 와인의 향기를 맡는 것이었다. 일본의 "보조레와인"은 불란서같으면 테이블와인으로서 가볍게 마시는 와인인 걸. 디너가 계속되었다. 그 일본인은 자기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왔으면서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너그러운 듯이 그것을 먹는 것이었다.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양보 않으면서 이런 때에는 양보하는 건가. <프랑스인 남성25세>



o dasu)	●舌を巻く (shita wo maku)
子 2.自分の失敗にでてる様子	感心し、おどろきあきれる
2. 因失敗不好意思而伸舌頭	表示佩服，或驚歎不已而嘖嘖咋舌
their back 2. Be embarrassed at one's own blunder	Be full of admiration and surprise
습 2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 하는모습	감탄해서 몹시 놀라는 모습.
るが、陰では舌を出しているような人だ。	あの少年の記憶力には、みんなが舌を巻いた。
ところ、人違いだった。謝りながらペロッと舌を出した。	"Ano shonen no kiokuryoku ni wa, minna ga shita wo maita.
o shite iru ga, kage de wa shita wo dashite	
o kaketa tokoro, hitochigai datta.	
shita wo dashita."	
一到背後就會扮鬼臉的人。	
去，却發現弄錯人了。一邊道歉，一邊難為情地伸了伸舌頭。	那個男孩子的記憶力使大家驚歎不已，嘖嘖咋舌。
no puts on a good face in front of	"Everyone was astounded at the boy's memory."
him behind his back."	저 소년의 기억력에는 모두 혀를내두른다.
d and I called out, but it wasn't him.	
embarrassed."	
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그런 사람이다.	
만, 사람을 잘못졌었다. 사과하면서(몹시) 부끄러웠다.	



TOP

シリーズ・入管法(1)

イントロダクション

Q：入管法とは何ですか？

A：正式名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といいます。目的は「本邦に入国し、または本邦から出国するすべての人の出入国の公正な管理を図るとともに、難民の認定手続きを整備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なっています。

Q：いつ頃できたもの？

A：第二次世界大戦後の1951年（昭和26年）ポツダム政令の形式で「出入国管理令」（入管令）として制定され、平和条約発効後、法律としての効力を認められたものです。

Q：難民認定法という名称は？

A：日本が難民条約・議定書に加入したのに伴い、難民認定の手続きが入管法に定められたのでこのような名称となりました。

Q：国により、出入国管理システムは違うのですか？

A：国際慣習法で「国家の自由裁量によって独自に決定できる」とする取り扱いが確立しています。国際情勢、外交関係、国内の経済事情、労働事情、治安状況、国民生活などを考慮してきめられています。大別すると、

①古典的出入国管理制度——国防や治安を重視したもので、警察行政の一環

連載・入管法 導言

問：入管法は怎麼回事呀？

答：正式の名稱是“出入國管理及難民認定法”。其目的在於：“進行對於進入或者離開本境的全體人員的公正的出入國管理的同時，整頓和齊備認定難民的手續。”

問：是什麼時候制訂的？

答：是在第二次世界大戰後的1951年（昭和26年），參照波茲坦公告的形式制訂了“出入國管理令”（入管令）。這一法令在和平條約公布之後，被承認為具有和法律同等的效

問：難民認定法又是什麼呢？

答：隨著日本參加了難民條約議定書，在入管法亦規定了認定難民的手續，因而改成了現在的名稱。

問：不同的國家，出入境管理的制度是有所不同的嗎？

答：根據國際習慣法，是確定為可以按照各國自由判斷作出獨立的決定的。因而，是基於國際局勢、外交關係、國內經濟情況、勞動力情況、治安情況、國民生活等等方面考慮而作出決定的。可以分成三大類：（1）古典式的出入國管理制度——重視國防和治安，是作為警察行政的一個環節來予以執行的。在戰前的日本亦是由警察擔當的。

（2）歐洲大陸型出入國管理制度——在入國方面沒有規定嚴密的手續和限制，是屬於比較寬松的；但是對於在國內就職的



PICS

SERIES IMMIGRATION LAW (1) INTRODUCTION

Q: What exactly is the Immigration Law?

A: Its official name is the 'Emigration, Immigration and Recognition of Refugees Act'. Its aim is the 'fair control of the entry and exit of all people entering and leaving Japan, and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s.'

Q: When did this law come into being?



A: It was enacted as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Act' in 1951 in the form of the Potsdam Ordina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was recognized as having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after the Peace Treaty was issued.

Q: What about the name 'Recognition of Refugees Act'?

A: With Japan's signing of the Displaced persons Convention and Protocol, procedures for recognizing refugees were stipulated by the Immigration Law, and the law came to be known by its present name.

Q: Does the immigration system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 It was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at each country be free to decide its own system. Each system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diplomatic relations,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labor situation, public peace and order, national life, etc.

Systems fall broadly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

① Classical Immigration System

Carried out as part of police administration, importance is placed on national defense and public order. In Japan too, before the War, the police were in charge of immigration.

시리즈 · 입관법 (1) 입문

Q: 입관법이란 뭡니까?

A: 정식명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과 함께, 난민의 인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A: 제2차세계대전후 1951년(昭和26년) 포츠담정령(政令)의 형식으로 "출입국관리령"(입관령)으로서 제정되어, 평화조약발효후에도 특별법에 의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된 것입니다.

Q: 난민인정법이란?

A: 일본이 난민조약·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난민인정의 절차가 입관법(入館法)에 제정됨으로써 이와 같은 명칭이 되었습니다.

Q: 나라마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은 다릅니까?

A: 국제관습법으로 국가의 자유재량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고 그 취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세, 외교관계, 국내의 경제사정, 노동사정, 치안상황, 국민생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① 고전적(古典的) 출입관리제도—— 국방 및 치안을 중시한 것으로 경찰행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전(戰前)의 일본에서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② 유럽대륙형 출입관리제도——입국에 대해서는 엄밀한 수속이나 제한은 두지 않는 비교적 온건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동(직업을 갖는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는 등, 체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제도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③ 미국형——이민을 비롯해 외국인 의 입국 및 체류에 구체적 규정을 정하는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의 흐름을 담은 제도. 남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후 아시아 각국에서 채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미국형임.





として行われています。戦前の日本でも警察が担当していました。

②ヨーロッパ大陸型出入国管理制度 —— 入国については厳密な手続や制限をさだめず、比較的ゆるやかですが、国内で稼働する者に対しては、厳しい制限を課すなど、在留については厳格な管理を行なうものです。ヨーロッパの多くの国で採用されています。

③米国型 —— 移民をはじめ外国人の入国、在留について一貫して具体的規定を定めるもので、米国の「移民及び国籍法」の流れをくむ制度。南北アメリカのみならず、第二次世界大戦後アジア諸国各国で採用されてきています。日本は米国型。



Q：日本への入国手続きは？

A：①まず、有効な旅券(パスポート)と滞在目的に合致した査証(ビザ)をその旅券に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②日本の出入国港へ着いたら、上陸の申請を行ないます。(出入国記録カード)

③入国審査官によって、上陸を認めてよいかの審査が行なわれます。

④上陸を認められた者の旅券に、上陸許可の証印が押されます。

以上で、正式に入国したことになります。

* 1989年12月、日本の入管法が、時代の要請に対応し、適正な出入国管理行政を進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一部改正され90年6月1日より施行されました。改正の主要点は ①在留資格の拡充 ②入国審査手続きの整備 ③不法就労対策のための規定の整備となっています。次回以降「改正入管法」についても、詳しくふれていきます。

人、却加以嚴厲的限制等等，對於居留進行嚴格的管理。為歐洲多數國家所採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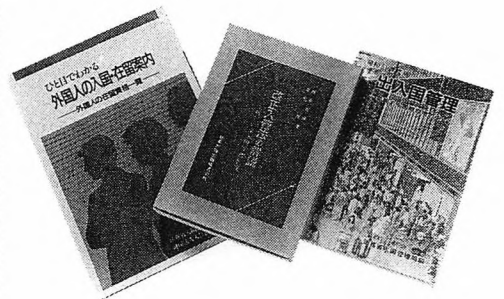
(3)美國型 —— 是汲取了對移民及外國人的入境、居留作了一貫性的具體規定的美國“移民及國籍法”的流程而訂立的制度。不僅在南、北美洲各國，而且在第二次世界大戰之後為亞洲各國所採用。日本是属于美國型的。



問：日本の入境手續是怎樣的？

答：(1)首先必須持有有效的護照，以及在該護照上有與逗留目的相一致的簽證。(2)在到達日本的出入境港口後，要進行登岸申請。(出入國記錄卡片)(3)經由入國審査官員的審査，得到登岸的許可。(4)在得到登岸許可的護照上，蓋上登錄許可的印章。

* 1989年12月，日本の入管法順應着時代的潮流，以施行確當的出入國管理行政為目的，進行了部分修改之後，於1990年6月1日開始實施。其修改的主要點在于 (1)擴充居留的資格 (2)整頓和齊備入國審査的手續 (3)整頓和齊備非法就業對策的規定。下一期之後，我們還會就改定後的入管法，予以詳細的介紹。



② Continental European Immigration System — This is a comparatively lenient system with no strict procedures or restrictions on immigration, but it does place strict restrictions on people working in the country and enforces rigid control of residence in the country. It is adopted in most European countries.

③ American-Type System — This system draws on the American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nd lays down coherent and concrete stipulations regarding the entry and residence of immigrants and foreigners. It has come to be adopted not only in North and South America, bu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various countries in Asia too. Japan uses the American-type system.



Q: What are the procedures for entry into Japan?

A: ① First of all, you must have a valid passport and inside your passport must be stamped a visa tha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your stay.

② When you arrive at the port of entry to Japan, you apply for disembarkation. (Embarkation/Disembarkation Card)

③ The immigration inspector checks whether or not to approve your disembarkation.

④ If permission is granted, you will receive a stamp in your passport.

The above is an outline of the official procedures for entry into Japan.

•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times, in December 1989 the Immigration Act was partly amended with the aim of promoting fair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amendment came into effect from 1st June 1990. The main points of the amendment are:

① expansion of residence qualifications, ② changes in immigration inspection procedures, and ③ changes in regulations dealing with illegal workers. We will touch on 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Act' in more detail in future issues.



Q: 입국에의 입국절차는?

A: ① 먼저, 유효한 여권(패스포트)과 체재목적에 합치하는 사증(비자)을 그 여권에 받은 것을 소지할 것.

② 일본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상륙신청을 함. (출입국기록카드)

③ 입국심사관에 의해 상륙을 인정해도 좋은지의 심사가 행해짐.

④ 상륙을 허가받은 자의 여권에 상륙허가의 중인(證印)이 눌러짐.

이상으로 정식으로 입국한 것이 됨.

※1989년12월, 일본의 입관법이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여 적정한 출입국관리행정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되어 90년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점은 ①재류자격의 확충 ②입국심사수속의 정비 ③불법취로대책을 위한 규정의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 이후 "개정입관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N F O R M A T I O N



新宿区役所発行의 3ヵ国語による生活情報ガイドブック
(外国人相談窓口)に設置、無料)

新宿區區公所發行的三國語言生活情報指南手冊
(放在外國人商量窗口旁，免費贈送)

Guide book of essential information for everyday living issued by Shinjuku Ward Office in 3 languages
(Available free of charge at the Foreigners' Advisory Service counter)

신주쿠구청(新宿區役所) 발행의 3개국어에 의한 생활정보가이드북
(외국인상담창구에 설치, 무료)

WANTED

世の中には「しくみ」というものがある。がむしゃらに働いて、やみくもに消費し、年月を費やした時代は終わった。今や自分が本当に欲しいもの、やりたい事を積極的に知ろう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だ。WANTEDでは、さまざまな情報 — 求人、求職、学校案内、サークル活動などを盛り込んでいこうと思う。創刊準備号では、働く人をターゲッ

在這個世界上處處都有所謂的“順理成章”。拼命幹活之後花天酒地，這樣過日子時代已經告終了。今天是每個人必須積極地探究什麼是自己真正想要和想做的時代了。在本刊招聘WANTED欄里，我們想要儘可能大量地搜集各種各樣的情報，諸如：招工、聘用、入學指南、小組活動等等。在本創刊預告號中，我們以正在工作的讀者們為目標，就最近



トに最近の日本の新聞紙面からの興味ある題材や実際に企業で働く外国人の意見を聞いてみた。

— 建設現場 人手不足、ちょっと和らぐ

好景気で深刻な人手不足だった建設現場に、やや「ゆとり」が戻ってきた。マンション建設など民間部門の工事が伸び悩んでいるのが原因だ。しかし、長期的にみれば技能労働者を中心に慢性的な人手不足に変わりはない。

— 外国人留学生の採用調査半数が積極的

「採用予定あり—22%」「採用を検討する—29%」「今後増加する—37%」企業674社（外資系含む）を対象にアンケートが行われた。（財団法人内外学生センター）

— 仲介ブローカーとのトラブル後絶たず

昨年の入管法改正から「不法就労」をより厳しく取り締まるようになったが、日系人に限って日本での就労が認められている。多くはブローカーによって集められるが、悪質な事件が横行しているため、労働省は「日系人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を開設。だがトラブルに

日本報上刊载の饒有興味の題材，希望能够聽取一下在企業中實際工作的諸位外國人的意見。

——建築工地缺乏勞動力有所緩和

由于好景氣勞動力嚴重缺乏的建築工地，也回復到略有“餘地”了。原因在於房屋等民用部門的工事，行市呆滯。但是，從長遠來看，以技術工種為中心的慢性的勞動力不足是沒有變化的。

——對聘用外國留學生調查結果，

半數態度積極

“有聘用計劃的——22%”、“正在研究準備聘用的——22%”、“今後準備增加的——37%”，對674家企業（包括外資在內）進行了意見徵詢。（財團法人內外學生中心）

——和職業介紹經紀人的糾紛不斷發生

自從去年改訂入管法以來，對於“非法就業”的管制更加嚴厲了。但是，對於日裔人在日本就業却是予以承認的。這樣，這些人就大量地由職業介紹經紀人集中起來，性質惡劣的詐騙事件亦一時橫行。為此，勞動省開設了“日裔人雇傭中心”。儘管如此，對糾紛的

WANTED

There is a 'design' to the world. The age of working frantically, consuming haphazardly and wasting time is over. Now is the time to try and actively discover what we really want to have and do. In WANTED we hope to include a variety of information - Help Wanted, Situations Wanted, Schools Guide, Circle Activities, etc. For this introductory issue we have taken up some topics of interest from recent Japanese newspapers aimed at working people and we have asked foreigners actually working in Japanese companies for their opinions.

— CONSTRUCTION SITE SLIGHT EASING OF LABOR SHORTAGE

A slight relief has returned to the construction sites which were hard hit by shortage of labor at a time of booming business. The reason is to be found in the levelling off of construction work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the building of apartment houses. However, in the long term the chronic shortage of skilled workers remains unchanged.

— SURVEY ON EMPLOYMENT OF OVERSEAS STUDENTS - OVER HALF OF COMPANIES SHOW POSITIVE ATTITUDE

A survey was conducted of 674 companies (including foreign companies). 22% intend to offer employment. 29% are considering offering employment. 37% intend to increase employment in the future. (Japanese and Foreign Student Center)

— WORKER BROKER TROUBLE CONTINUES

Clampdowns on 'illegal workers' have become even stricter since last year's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Act, but foreigners of Japanese descent are able to work in Japan. Most of these people go through brokers, but because of the number of incidents involving bad brokers, the Ministry of Labor has opened an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of Japanese Descent'. It is unable however to keep up with the incidents of trouble.

—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FLOURISH WITH FOREIGN WORKERS

Industry has flourished in the eastern part of Gunma Prefecture since the War. Many industrial parks have been set up and they have been hard hit by the labor shortage. At the present time foreigners account for over 4% of the total population. The town of Oizumi is a very pleasant place for foreigners to live and th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Security' is promoting it as a model town for the 21st

이 세상에는 "仕組(짜임새, 구조, 계획의 뜻)"라는 것이 있다. 앞뒤 안 보고 일하고, 마구 닥치는 대로 소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알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WANTED에서는 갖가지 정보——구인, 구직, 학교안내, 서클활동 등을 실어 가고자 한다. 창간준비호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일본의 신문 지면에서 흥미있는 제재(題材)나 실제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 건설현장의 일손부족, 조금 완화 기미

호경기로 심 각한 일손부족을 보였던 건설현장에 얼마쯤 여유가 되 돌아 왔다. 맨션건설 등 민간부문의 공사의 신장률이 둔화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만성적인 일손부족에는 변함이 없다.

—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조사 절반 이 적극적

"채용예정있음—22%" "채용을 검토함—29%" "향후 증가함—37%" 기업674사(외국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다. (재단법인내외 학생센터)

— 중개브로커와 트러블 끊이지않아

작년의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불법취로"가 이전보다 엄중히 단속되고 있으나, 해외에 이주했던 일제인(日系人)만은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많은 브로커들에 의해 그들은 모집되어오고 있으나, 악질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므로 노동성은 "일제인고용서비스센터"를 개설. 그러나 그 많은 트러블의 완전해결은 어려운 상황.



追いつかない状況だ。

— 外国人労働者が支える中小企業の街

群馬県東部は戦後から工業が発達し、いくつもの工業団地が開発されており、人手不足が深刻化している地区だ。現在外国人が総人口の4%を超えている。大泉町では、外国人にとって住みやすい町、21世紀のモデルにしたいと「雇用安定促進協議会」の活動を行っている。

■外国人社員の雇用パターン（日本企業）

- ①語学能力を求める
- ②国内の外国人を対象にした業務につかせる
- ③エンジニアリングなど特殊技能を求める
- ④日本人にはない感性・発想を求める
- ⑤海外関連業務につかせる
- ⑥将来の海外子会社の経営管理候補として逆

出向させ、キャリアをつませる——
などがあげられているが、現在の制度では上記①～③だけは、特殊専門的な職務に属するので在留許可されビザが確保できる。④～⑥については、特殊性・専門性の確認がとれない。企業は「なぜ日本人でなく、外国人にこの仕事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説明と建前が必要となっているため、雇用を困難にしている。

●日本の商社に勤める上海出身の丁さんの話。
「企業にとってその国の事情を理解することが、市場開拓に必要なだと考えて、自分が採用されたと思う。言葉の問題、発想の違いは歴然としていますから。現地と日本のかけはし役がないと商談はうまく成立しません。自分もその中で経験を積みながら、商品知識や人脈を作っています。日本で成功しようと思うなら、必ず目標をもって実戦力を身につけることですね」

解決還只能是杯水車薪。

——由外國工人們支撐的中小企業城鎮

群馬縣東部是戰後開始發展工業而開發成幾個工業團地的，亦是勞動力嚴重缺乏的地區。現在，外國人占了總人口的4%以上。在大泉町內，現在正在開展一個能夠為外國人安居樂業，成為21世紀的楷模的“雇用安定促進協議會”的活動。

■雇傭外國人職工的幾種類型（日本企業）

- (1)對語言能力的要求
- (2)擔任以國內的外國人為對象的業務
- (3)對工程技術等特殊技能方面的要求
- (4)對日本人所沒有的感性和想法方面的要求
- (5)擔任有關國外的業務
- (6)作為將來在海外子公司的經營管理候補，

從日本加以派遣，使其積累工作經歷

可以舉出以上等等的幾種，但是目前在制度上只有以上的(1)-(3)是屬於特殊專業性的職務，而可以確保拿到旅居簽證的。可是，就(4)-(6)而言，是不能確認為具備特殊性和專業性的。作為企業，因為必須要就“為什麼不能由日本人而非得由外國人來擔當這項工作”來加以說明並確立原則的，所以要雇傭是有困難的。

●用現在一家日本商社就職的，來自上海的小丁的話來講：“作為企業來說，要開闢市場就必須瞭解這個國家的情況。基于這樣的考慮，我被聘用了。因為在語言問題及想法上，差異是一目瞭然的。如果沒有當地和日本之間的橋梁的話，生意是談不成的。我本人亦要從中積累經驗，學習商品知識和構築人際關係。要想在日本得到成功，就非得樹立目標，把實戰的本領學到手不可。”



century.

■ Employment Patterns of Foreigners (Japanese Companies)

- ① Work requiring linguistic ability
- ② Setting up a business dealing with foreigners in Japan
- ③ Work requiring a special skill such as engineering
- ④ Work requiring sensitivities and concepts not possessed by the Japanese
- ⑤ Setting up a business with overseas connections
- ⑥ Being transferred to Japan to gain experience as a candidate for future management of an overseas subsidiary.

The above are examples of employment patterns among foreigners, but under the present system residence is only granted and a visa assured in the case of ①~③ as only these pertain to special functions. With regard to ④~⑥, there is no clearly defined specialty or expertise. Employment is made difficult by the need for companies to explain 'why it is necessary to have a foreigner do this work and not a Japanese.'

● Ding comes from Shanghai and works in a Japanese trading company. He has this to say:

'I think I was employed because the company felt that to open up the market it was necessary to have someone who understood the situation abroad. Obviously there were communication problems and differences in ways of thinking. Without someone to act as a bridge between here and the foreign country, negotiations flounder. The work helped me gain a lot of experience while at the same time learning about products and about human relations.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Japan, you have to have an objective and the ability to realise it.'

—외국인노동자에 의해 유지되는 중소기업의 거리

군마현동부(群馬縣東部)는 종전후부터 공업이 발달하여 수치의 공업단지가 발달되어 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화되어 있는 지구다. 현재 외국인이 총 인구의 4%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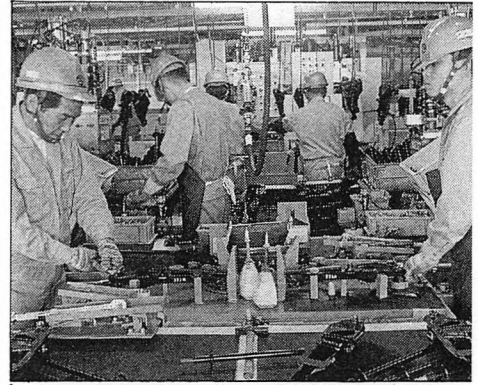
大泉町에서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거주하기 편한 마을, 21세기의 모델로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촉진협의회"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외국인사원의 채용형태(일본기업)

- ① 어학능력을 요구
- ② 국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담당케 함
- ③ 엔지니어링 등 특수기능을 요구
- ④ 일본인에게는 없는 감성·발상(發想)을 요구
- ⑤ 해외관련업무를 담당케 함
- ⑥ 장래의 해외자회사의 경영관리후보로서 역과전시켜 캐리어를 쌓게 함——등을 들 수 있으나, 현재 이 제도로서는 상기의 ①~③만으로는 특수전문적인 직무에 속하므로 채용허가되어 비자확보가 가능하다. ④~⑥에 대해서는 특수성·전문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업은 "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설명과 원칙이 필요하게 되므로 고용을 곤란하게 한다.

● 일본의 상사(商社)에 근무하는 중국상하이출신의 丁씨의 조언

"기업에 있어서 그 나라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개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학문제, 발상(發想)의 다른 것은 확연하므로 현지와 일본과의 다리 역할이 없으면 상담(商談)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자신도 그 가운데 경험을 쌓아가면서 상품지식과 인맥 등을 만들어 갑니다. 일본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갖고 실천력을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環境問題激論

9月13日(金)午後5時、折しも台風の接近で、小雨のぱらつく中、大久保1丁目の区立西大久保公園において、百人町のホテル街(通称、国際ストリート)の浄化をめざして「大久保百人町地区環境浄化決起集会」が開かれた。いぶき町会、百人町東町会、ホテル・旅館組合、新宿区、新宿署などの団体により、対策協議会が結成されたのを機に、この決起集会が行なわれた。ここまでに至った経緯を説明すると、昨年6月頃より、外国人売春婦が急激に増え、それによって①エイズの感染 ②空缶や煙草の吸い殻、紙屑の投げ捨て ③昼夜にわたる大声による騒音などの環境の悪化が著しいため、入国管理局、地元百人町、区役所、警察が一体となって、大久保地域の浄化を図っていききたいと立ち上がった…というわけで、集会と巡視パレードとなった。そこで、集会に参加した人たちの話を聞いてみた。

「売春している女性の用心棒らしい外国人男性が、この辺りにたむろしていて、不気味ですよ」(町内会の女性)

「2～3年前から徐々に売春女性がこの辺に集まってきましたね。口コミでや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一般のお客が入りにくくなったので、商売にもひびいていますよ」(ホテルの経営者)

「犬を散歩している昼間から、誘うんですよ。女の私をですよ。見境なしなのね。それにうるさくて眠れやしない」(三代にわたってこの近くにすむ女性)

環境問題大辯論

9月13日(星期五)下午5時、正值颱風接近、在稀稀落落的雨點之下、於大久保一丁目的區立西大久保公園內、就淨化百人町の旅館街(通稱為國際街道)、召開了“大久保百人町地區淨化環境奮起大會”。這是借了息吹町會、百人町東町會、旅館同業公會、新宿區、新宿警察署等的團體、結成了對策協議會的東風召開的奮起集會。說明一下到此為止的來龍去脈的話，那是從去年6月份前後起，外國人的賣春婦急劇地增加了，由此而引起的(1)艾滋病的感染；(2)亂拋空瓶空罐、煙蒂、紙屑的現象；(3)不論白天或是黑夜都大聲叫嚷而造成的噪音，使環境的惡化十分顯著。這樣，入國管理局、當地的百人町、區公所、警察就聯合在一起，為淨化大久保地區而站了起來，開始了集會和巡視。讓我們先聽一下到會者的發言吧。

“好像是給那些妓女們做保鏢一樣的外國男人，在這一帶三三兩兩地聚集在一起，真叫人害怕。”(町內會的一位女性)

“從兩、三年前開始、妓女們就開始在這一帶聚集起來了，大概是通過口傳消息的渠道來的吧。反而使一般的客人進不來了，我們的生意亦受到了影響。”(旅館的經營者)

“白天牽着狗散步時亦會招呼上來了，是招呼我這個女的。真是不分青紅皂白。再加上吵吵嚷嚷的，連覺都不讓人睡。”(在附近住了三代的女性)

“謠傳還說，後邊有牽錢的流氓集團在那里，在販賣毒品等等呢！事態正發展的愈來愈嚴重了。”(一位開店的男性)



「大久保百人町環境浄化決起集會に
参加のため本日P. 5:00 ~ 7:00の間
休業致します」

“因参加大久保百人町浄化環境
奮起大會，今日下午5:00—7:00
臨時休業”

'Business will be suspended from
5:00 ~ 7:00pm this evening for
the Okubo Hyakunin-cho
Environment Cleanup Rally'

“大久保 百人町환경정화결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일 P.M 5:00~7:00까지 휴업함”



HEATED DISCUSSION ON “ENVIRONMENTAL” ISSUES

At 5pm on Friday 13th September, there was a light rain due to the approaching typhoon. In West Okubo Park located at 1-chome Okubo, the 'Okubo Hyakunin-cho District Environment Cleanup Rally' was being held with the aim of cleaning up the hotel district (commonly known as International Street) of Hyakunin-cho. The rally was held following the formation of a clean-up council by such groups as the Ibuki Town Association, Hyakunin-cho East Town Association, the Hotel Union, Shinjuku Ward, and Shinjuku Police Station. To describe how this came about, from about June last year the number of foreign prostitutes increased sharply and as a result the "environment" deteriorated noticeably by ① the spread of Aids, ② streets littered with empty cans, cigarette stubs and waste paper, ③ disturbances caused by loud voices day and night, etc. This resulted in the Immigration Office, the residents of Hyakunin-cho, the Ward Office and the Police uniting forces in an attempt to clean up Okubo district, and the rally and parade were held. We asked some of the people attending the rally for their opinions.

'Foreign men who seem to be the prostitutes' bodyguards gather in this area. It's very unnerving.' (Woman member of town association)

'Prostitutes gradually started gathering in this area from about 2 or 3 years ago. The word just seemed to spread around. Once that happened, ordinary customers stopped coming and it has been very bad for business.' (Hotel manager)

'When I take the dog out for a walk during the day, both men and women try to pick me up. I'm not one of them but they make no distinction. And the noise at night is so bad it's impossible to sleep.' (Third generation resident of this area)

환경문제격론

9월13일(금)오후5시, 매마침 접근한 태풍으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大久保1丁目の 區立西大久保公園에서 百人町の 호텔가(통칭, 국제스트리트)의 정화를 목표로 “大久保百人町지구 환경정화결기대회”가 열렸다.

いぶき町會, 百人町東町會, 호텔·여관 조합, 新宿區, 新宿경찰서 등의 단체에 의해 대책협의회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이러한 결기집회가 거행된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면, 작년6월경부터 외국인 매춘부가 급격히 늘어나 그로 인해 ①에이즈의 감염 ②빈강통이나 담배꽂초, 휴지 등을 마구 버리거나 ③주야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벌이는 등의 환경의 악화가 현저하므로, 입국관리국, 현지百人町, 區役所, 경찰이 일체가 되어 大久保지역의 정화를 꾀하고자 결기한 것으로, 집회와 순시순찰로 이어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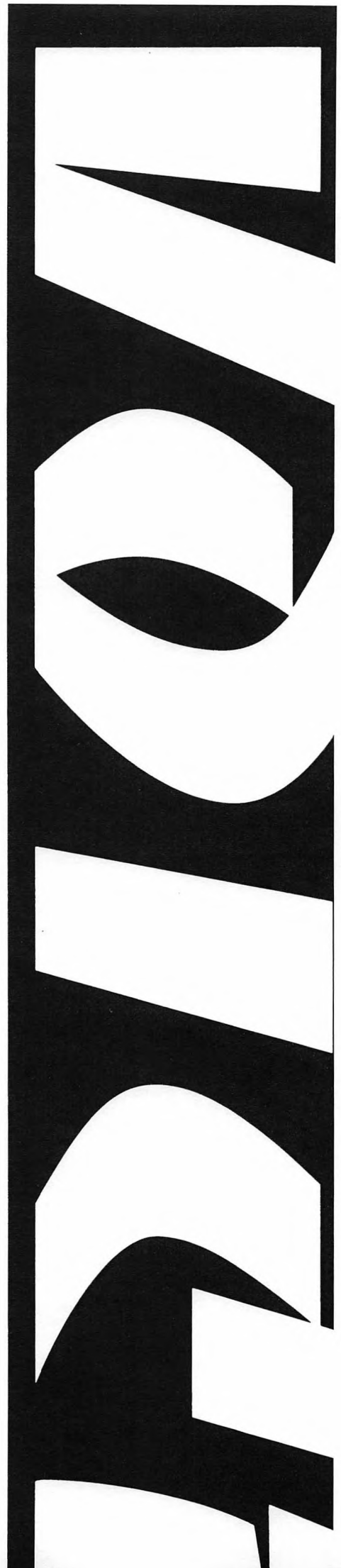
“매춘하는 여성의 기동서방인지 호위꾼같은 외국인남자들이 그 주변에 우글거려 겁나요.”(町内會의 여자)

“2~3년전부터 서서히 매춘녀들이 이 주변에 모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소문을 듣고 오는 거겠지요. 일 반객들이 들어오길 꺼려해서 장사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호텔경영자)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 대낮부터 유혹하는 거예요. 나같은 여자를 말이에요. 이제 남녀분별도 없는 건가. 그 위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구.”(3대에 걸쳐 그 근처에 사는 여자)

“소문에는 뒤에서 조종하는 폭력단과의 관련이나 드러그(마약)의 매매등, 심각한 사태에 달하고 있는 모양이다.”(상점을 경영하는남자)

이러한 실태를 같은 지역주민인 갖가





環境浄化決起集会の様相

“淨化環境奮起大會”的情景

Scene at Environmental Cleanup Rally

환경정화결기집회의 모습

「うわさでは、そのうらで糸をひく暴力団のかかわりや、ドラッグの売買など、深刻な事態にまで発展しているようだ」（商店を営む男性）

この実態を、同じ地区住民であるさまざまな立場の外国人に聞いてみた。

「その通りを、自転車で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が、すごいですね。南米の人が多くみたいです。同じ女性として悲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大東文化大留学中の台湾女性）

「歌舞伎町と大久保周辺では、テリトリーがあって、人種が違う。タイの女性をみると早く帰れ、と注意しましたが、近頃は声もかけません。彼女らも、自ら望んできているわけじゃありませんからね」（タイ料理店のウェイター）

「外国人と見ると売春婦と思うのかしら。混同されるのがとてもイヤです」（クラブに勤める韓国女性）

「マフィアやその組織を取り締まらないと大久保を出ても、ほかの地域に移るだけだと思う。米国も抱える大きな問題のひとつだ」（企業に勤める米国男性）

昨年来、延べ7回以上の一斉取締りで300人を超える外国人が摘発されたが、釈放されたり、新しい組が到着したりと、付近の住民が、安らかに夜を過ごせる日は、すぐにはやってこないようだ。現在でも、各関係官庁への請願、取締りの強化を訴える、署名運動も行なわれている。

今回大久保でつかわれている、身のまわりの状態を表わす「環境浄化」という言葉は、外国人売春婦を排斥し、環境を保護しようというものらしい。フロンガス廃絶や農薬使用を禁止する運動とは、内容が異なるといえないか？ 相手は人間である。以前、隣のピアノがうるさいと、殺人事件がおこったこともあった。犯人は自分の環境を守っただけだといっていた。

現在、世界中が環境保護問題に取り組みはじめた。海外への企業進出にともない、経済発展してきた日本。自然破壊、汚染、公害輸出など現地でおこったトラブルはなかなか日本に届いてこない。

人間の作り出した文明によって、環境破壊が行われる。が、環境を破壊するものの正体をつきとめ、ストップさせるということは、ただ単に目の前の汚いもの、見たくないものを見えなくす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はずだ。再度「環境」という言葉自体を考えてみたい。我々の心自体が犯されてしまっているまいか。「環境」の中に自分も生きているのである。あなた自身の意見を乞う。

實際的情況，我們亦聽取了居住在同一地區的、立場各異的外國人的意見。

“這條路，我有時騎腳踏車走過，真是亂七八糟。好像南美洲的女性比較多一點。同樣是一個女的，我覺得很悲哀。”（在大東文化大學留學的一位臺灣女性）

“在歌舞伎町和大久保周圍，有他們的勢力範圍，似乎人種亦不一樣。開始時，我看到泰國女人來，就叫她們注意趕快回家。但到了最近，連招呼亦懶得打了。但是，她們亦不是出于自己喜歡而來的呀。”（在一家泰國餐館工作的侍者）

“難道看到外國人就可以認為是妓女嗎？這樣混為一談是太叫人不愉快了。”（一位在夜總會工作的韓國女性）

“如果不把販毒和犯罪組織取締掉的話，即使走出了大久保，亦會跑到其他地區去的。這不也是美國面臨的一個大問題嗎？”（在某個企業供職的一位美國男性）

從去年以來，一共採取了七次以上的同時取締行動，檢舉揭發了300個以上的外國人。但是，由于部分人得到釋放，還有新的組織到來，所以附近的居民們要過安穩的夜晚的日子似乎遙遙在望。至今，向各有關官廳的請願、要求嚴厲取締的署名運動還正在進行之中。

這次在大久保使用的表達自身周圍狀態的所謂“環境淨化”的講法，似乎是要排除外國賣春婦，以達到環境保護的意思。應該說是和廢除氟隆氣體以及使用農藥的運動，在內容上是有所不同的，因為前者的對象是人。從前亦曾聽說過因為隔壁的鋼琴聲太吵鬧而引起殺人事件的。而這個殺人犯則聲稱他只是為了保護自己的環境。

現在，全世界都開始全力以赴地解決環境保護的問題了。隨着企業向海外擴張，日本的經濟亦進一步發展了。但是，在當地發生的諸如破壞環境自然、污染、公害輸出等糾紛却極少在日本得到報道。

人類創造的文明正在破壞着環境。但是，要清查破壞環境的罪犯的真面目並制止其繼續犯罪，想來並不是靠簡單地把眼前的污穢的東西、醜惡的東西搬到看不見的地方就能解決的。我們希望大家能對“環境”這個詞兒本身再深思一番。是不是我們自己的心靈已經受到侵蝕了嗎？在這個“環境”之中，我們亦是在生活着的。我們懇切希望諸位能發表自己的意見。

'There are rumours that things have become very serious with gangsters pulling the strings behind the scenes, drug dealing and the like.' (Storekeeper)

We also asked some of the foreigners who live in the area for their opinions on this state of affairs.

'I have been along this road by bicycle and it's dreadful. There seem to be a lot of girls from South America. It makes me sad to see all those girls.' (Taiwanese girl studying at Daito Bunka University)

'There are 'territories' around Kabuki-cho Area and Okubo- Area with different races of people. Whenever I saw a Thai girl, I used to tell her to go back home, but now I don't talk to them anymore. It's not as though they are here by choice.' (Thai waiter in Thai restaurant)

'People seem to think that all foreigners are prostitutes. It's very unpleasant being mistaken for a prostitute.' (Korean girl working in a club)

'I think if they don't crack down on the mafia and their organization, even if they move out of Okubo they will just set up somewhere else. It's a big problem in America too.' (Male American company employee)

Since last year more than 300 foreigners have been prosecuted in a total of over 7 general crackdowns, but they are soon released again or else new organizations move in and it looks like it will be a long time before the residents can spend their nights in peace. At the present time a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is under way to petition the various authorities concerned for tighter controls.

The 'Environmental Cleanup Campaign' in Okubo seems to refer to the expulsion of foreign prostitutes more tha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t is rather different from campaigns to abandon the use of freon gas or than prohibit the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This "Environment Cleanup" campaign is aimed at people. There have been cases before of murder being committed because the neighbour's piano was too loud. The accused said he was only protecting his environment.

The whole world is presently tackling the problem of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Japan's economic development was accompanied by the advance of companies into foreign lands. Yet the problems that arose in those countries in the way of the destruction of nature, pollution, exportation of pollution, etc. hardly reach Japan.

The environment is being destroyed by a civilization that was created by man. But there is more to identifying what is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putting a stop to it than simply getting rid of things around you that are dirty. We need to reconsider the word 'environment' itself. Haven't our own minds become polluted? We live in the 'environment'. We would like to know your opinion.

지 입장의 외국인에게 물어 보았다.
"이 거리를 자전거로 지나간 적이 있지만 대단하더군요. 남미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서글픈 감을 느껴요.

(대동문화대학 유학중인 대만여성)
"歌舞伎町와 大久保 주변에는 테리토리(판도)가 있어서 인종이 달라요. 태국여자들을 보면 빨리 돌아가라고 주의시켰지만, 요즘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도 스스로 원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태국요리점에서 일하는 태국인웨이터)

"외국인을 보면 매춘부로 생각하는 건가. 혼동되는 것이 아주 싫어요."
(클럽에 근무하는 한국여성)

"마피아와 그 조직을 단속하지 않으면 大久保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안고 있는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미국인 남자)

작년 이래 연7회이상의 일제단속으로 300명을 넘는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나, 석방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해서 부근주민이 편히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은 당분간은 올 것 같지 않다. 현재에도 각관계관청에의 민원, 단속의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大久保에서 사용된 자기 주변의 상태를 나타내는 "환경정화"라는 말은, 외국인매춘부를 배척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인 것 같다. 프레온가스 사용중지나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운동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는 인간인 것이다. 과거에 옆집의 피아노가 시끄럽다고 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범인은 자기의 환경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보호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해외에의 기업진출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일본. 자연파괴, 오염, 공해수출 등 현지에서 발생한 트러블은 그다지 일본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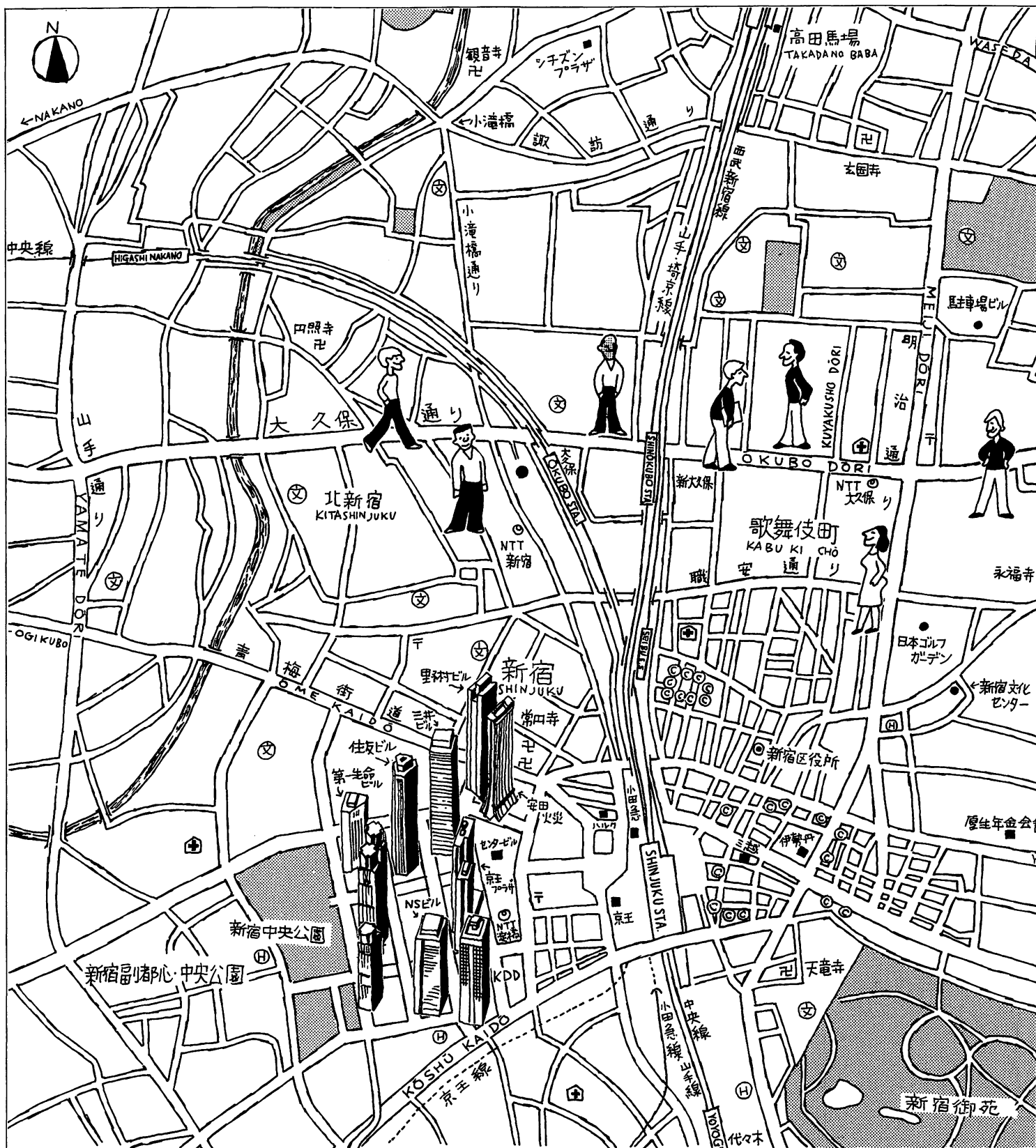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에 의해 환경파괴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의 정체를 규명해 중지시키는 일은, 단순히 눈앞에 더러운 것이나 보기 싫은 것을 안 보이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환경"이란 말자체를 생각해 보자. 우리들의 마음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닌가. "환경"안에서 자신도 살아 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このページは、読者の皆様や街の声を掲載していきます。テーマや内容も、身近なことから何でも受け付けますので、ふるってご投稿ください。また、we'reの特集や内容に関するご意見なども、心よりお待ちしております。

這一頁上刊登的是來自各位讀者以及街頭巷尾的聲音。無論是什麼主題或內容，只要有關於各位身旁發生的事情，我們都予以接納。請踴躍投稿。同時我們還衷心期待各位就 We're 的專刊及內容提出意見。

On this page we plan to print the views and opinions of our readers and of people on the street. We will accept contributions on any topic or theme, so please send them in. We would also like to hear your views on the topics and features that appear in We're.

이 페이지는 독자여러분이나 거리의 의견을 게재해 가겠습니다. 주제나 내용도 자기주위의 일부터 무엇이든지 받으므로, 적극적으로 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We're의 특집이나 내용에 관한 의견 등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THE THIRD EYE CORPORATION
株式会社 ザ・サードアイコーポレーション
1-19-9 HYAKUNIN-CHO, SHINJUKU-KU, TOKYO, JAPAN ZIP 169
東京都新宿区百人町1-19-9 〒169
Phone 03-3361-0722 Fax 03-3361-0221

We're編集部より

- ◎編集、ライター、カメラマン、翻訳、広報スタッフを募っています。新しい視点と、パワーのある方（年齢、性別、国籍不問）We'reに参加しませんか？まずは、電話連絡の上で来社ください。
- ◎We'reに関する、ご感想、アドバイス、また、特集内容についてのご意見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 ◎4ヵ国語同時翻訳We'reでは、日本語のみならず、あなた自身の国の言葉でも受けつけます。ふるってご応募ください。

◎募集編
能力高
We're
◎我們等
的内容
◎用四國
亦接收

